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갈비뼈 골절로 콩코드에 위치한 에머슨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한 환자는 퇴원 후 엑스레이 판독료 \$300불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 5억원 이상 미국 계좌 보유 한인들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2019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 국세청이 최근 미국 소재 금융기관에 한화 5억원(18일 환율 기준 약 42만 4000달러) 이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들은 다음 달 1일까지 한국 세무당국에 반드시 신고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알렸다.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까지 10억원이던 신고 기준금액을 5억원으로 낮추고 신고 대상자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 해외 거주자 그리고 내국법인 등이 지난해 기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 ▶▶2면으로 계속

## 건강보험 있어도 거액 병원비용 폭탄 빈발

### 네트워크 밖 의사 진료비 고스란히 환자에게 2014년 주내 1만명이 네트워크 밖 진료비 청구서 받아 MA주 외 미 전국적으로 만연한 문제, 법 정비 필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음에도 예측 못한 거액의 의료비용 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물론 미 전역에서 만

연하고 있는 문제다. 매사추세츠 주의 한 임신부는 출산을 위해 사우스쇼어(South Shore) 병원을 찾았고 진통이 시작되자 일반적인 진통제를 요청해 마취과 의사

가이를 시술했다. 아기를 출산하고 집으로 돌아온 며칠 후 의사그룹으로부터 \$2143.44의 청구서가 날아 들었다. 갈비뼈가 부러져 에머슨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던 또 다른 환자는 엑스레이를 판독했던 의사의 비용 \$300.91이 청구됐다.

주 보험부에 접수된 불만신고에 따르면 두 환자 모두가 같은 병원비용이 청구된 것에 어안이 병병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건강보험을 받는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단지 의료비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여름출발  
인천행 직항항공권  
\$1590~

출발: 6월 15일  
최소출발: 2019년 6월 15일(토) 10:00  
최대출발: 6월 20일(목) 10:00

신규 고객에게만, 항공권 구매 후 72시간 이내  
국내 출항(인천 출발)과 해외 도착(미국)에  
한해 무조건 적용 가능합니다

IACE TRAVEL  
866.619.4223  
6/24부터 발행시만 신청 ▶ 정회원 - 권유로 신청 필수(타사 제외) 15:00

Newstar JIL Realty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 평통자문위원 재외동포 참여공모 24일 마감

### 영사관이 아닌 평통사무처에 직접 신청 한인 단체, 평화통일 연구, 한국학교 관계자들 대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톤 총영사관은 올해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재외동포 참여공모를 7월 4일(한국시간)까지 받는다.

재외동포 참여 평통 자문위원 공모는 보스톤 총영사(재외공관장) 추천 평통자문위원과 별도로 실시하며 총 3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보스톤 총영사관은 19기 평통자문위원 후보 추천을 6월 24일까지 받고 있다.

재외동포 참여공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은 만 19세 이상으로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동포단체 구성원,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한인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www.nuac.go.kr) 공지사항에서 재외동포참여 공모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7월 4일(한국시간 기준)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해외지역과에 우편(EMS)으로 접수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사본(스캔) 제출하고 원본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또는 추천을 원하는 한인들은 1)해외 자문위원 후보자카드 및 정보제공 동의서, 2)자문위원 활동동의서, 3)자기 신원기술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4)신원진술서, 5)여권 사본 6)해외 범죄기록 증명원, 7)컬러사진 1매(3.5X4.5cm) 등 총 7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평통 사무처는 최종 위촉된 위원에게 8월 중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관련문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해외지역과 재외동포참여공모 담당자(조영수 주무관, 82-2-2250-2242)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평통 장수인 부회장 대통령 표창장 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장수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보스톤지역협의회 부회장이 대통령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김용현 보스톤총영사는 뉴튼에 위치한 총영사관에서 윤미자 보스톤평통회장등 평통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6일 장수인 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민주평통의장인 대통령 표창장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활동, 민간평화외교 등 공로에 이바지한 평통위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또한 장수인 부회장은 필하모니아



장수인 평통 보스톤지역협의회 부회장이 김용현 총영사로부터 6일 대통령 표창장을 전수받았다

보스톤 오케스트라 단장을 맡고 있으며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및 헌정음악회, Journey to Peace 음악회등으

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며 한인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5억원 이상 미국 계좌 보유 한인들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1면에 이어서  
다면 다음달 1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법인 등 기업은 물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유학생, 단기 체류자, 그리고 한국 거주기간이 최근 2년간 183일을 넘긴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신

고의무가 있지만, 지난 10년간 한국 내 주소를 갖거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영주권자나 해외국적 취득자라도 상황에 따라 신고대상자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며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해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만일 5억원 이상 해외계좌 보유자가 다음달 1일까지 이를 보고하

지 않으면 2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여기에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자신이 속한 한국의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이민국 OPT 허가 지연, 인턴 앞둔 유학생들 발동동

인턴 시작 90일 전에만 OPT 신청가능  
이민국 90일내 승인의무 폐지, 발급 5개월 이내  
일부 인턴직 취소, 일부는 인턴 시작 연기



버몬트 소재 다트머스 대학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학 필 핸론 총장과 학교 이사회에 편지를 보내 OPT발급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CPT 발급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이민국(USCIS)이 대학생들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노동허가 발급을 지연시키며 올 여름부터 인턴으로 일하기 위해 계획했던 유학생출신 졸업생들을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BU의 한 한인 학생은 OPT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자신은 물론 주위 아무도 아직 승인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17일자에서 보도에서 컬럼비아 대학 한 언론학과 졸업생은 현재 인턴십 시작 날짜를 미뤘으며 부모님의 지원에 의존해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린스턴의 한 학생은 인턴직이 취소가 됐다. 다트머스 칼리지의 학생신문은 유학생 10여명도 인턴 일자리가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OPT는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일 자리를 찾는 모든 유학생(interna-

tional students)에게 실습이 가능하도록 단기간 노동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신청서 접수는 인턴 시작일 또는 졸업일 90일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과거의 경우 큰 문제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승인은 60일 이전에 됐으며 최대 90일 이내에는 허가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노동허가는 90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5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이민국 측에서는 “올해 OPT신청자가 급증해 약간의 적체가 생겨서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 며 “이 문제를 집중해 곧 해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주 변호사는 “이 같은 노동허가 지연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드시 90일 이전까지 승인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다트머스 대학의 유학생인 알부 커크 고도이는 여름 인턴직을 위해

이미 일자리가 있는 시카고로 이전 했는데 아직까지도 OPT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 인턴직 일자리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허가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각 대학 외국출신의 유학생들은 주요 대학 총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현재 인턴으로 일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민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프린스턴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 총장과 국제센터소장에게 편지를 써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곤란을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프린스턴 대학의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루버 총장과 뉴저지 대학 총장들은 주 연방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번 OPT 승인 지연은 최근들어 유학생, 외국 출신 교수 및 교직원들에게 가하고 있는 압박의 증가 사례의 하나” 라고 지적했다. 이 편지에서 대학 지도자들은 지난 2년간 미국내 유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외국인 비자 수속시간은 무려 4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서는 OPT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학생들에게 CPT(Cur-

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허가해 주고 있다. 스탠포드와 MIT, 예일 등은 이미 이를 실제 적용하고 있다. CPT는 각 대학이 허락해주는 것으로 약 2주 정도 수속기간이 걸린다. 학생들은 대학들에게 “비상 CPT” 를 발급해 현재 OPT 발급 지연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인턴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다 그러나 CPT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인턴십을 위한 크레딧 수업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hsb@bostonkorea.co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 July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8 - 7/26	Mon-Fri
Chemistry(Preview)	1:00 PM - 3:00 PM	7/8 - 7/29	Mon/Wed/Fri
Biology(Preview)	4:00 PM - 6:00 PM	7/8 - 7/29	Mon/Wed/Fri

### August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5 - 8/23	Mon-Fri
SAT II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1:00 PM - 3:00 PM	8/5 - 8/23	Mon/Wed/Fri
	4:00 PM - 6:00 PM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6월 15일 한인회관 첫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여한 한인사회 관계자들. 한인회는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한인회와 한인단체의 활동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인회, 한인회관 오픈하우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가칭 매사추세츠 한인회 한인회관 오픈하우스 행사가 우번의 캠펠(Campbell) 스트리트 13번지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개최됐다.

한인회 임원진들은 한인회관 측면인 주차장 쪽에 천막 부스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개회식에는 장우석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이종섭 영사 순으로 인사말 및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보스톤에 위안부 소녀상 세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 연합 단체 위홉(We-Hope)의 손예은, 김형진, 황정우 씨 3명이 참여해 소녀상과 위안부에 관련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위홉 회원들은 보스톤에 위안부 소녀상 세우기 운동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생각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인 단체 중에서는 보스톤 한미예술인협회 김병국 회장,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 이현경

회장, 보스톤 대한체육회 이학재 회장, 보스톤 필하모니 장수인 단장이 참여해 단체와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뉴잉글랜드 한인회와 보스톤 체육회는 공동으로 8.15 광복절 한인체육페스티벌을 8월 10일 워터타운에 위치한 아스널파크에서 개최한다. 이학재 회장은 “이날 체육행사에 많은 한인들과 단체가 참가해주실 바란다” 며 체육회 참가를 당부했다.

이날 이학재 체육회 회장은 8월 10일 토요일에 진행될 제 74기 8.15 광복절 한인체육페스티벌 행사에 많은 한인과 단체가 참가하길 독려했다. 이 행사는 워터타운소재(아스널파크)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고 하였다. 장우석 회장도 “8.15 페스티벌에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고 밝혔다. 한인회관 오픈행사는 오후 4시 종료됐다.

bostonkorean@hotmail.com

## 2020 센서스국, 조사요원 모집중

시민권자만 지원 가능, 단기 일자리지만 추후 정규직 기회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 센서스국은 2020년 센서스를 위해 미 전역에서 약 50만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닉미디어서비스(Ethnic Media Service)에 따르면 이는 방문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635,000명을 고용했던 지난 2010년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여전히 50만명의 센서스국 일자리가 18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들로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LA지역 센서스국 부매니저인 셀레스테 히메네즈 씨는 센서스국의 선거조사요원 고용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고용자 수는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올해 센서스국은 미 전역에 센서스 사무국과 직원을 설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거 주민들의 주소록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중순 온라인 센서스 질문지가 완성되면 이를 작성하라는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는 주소 확인 작업을 실시하는 “리스터(listers)” 를 모집하고 있다. 이 직업은 시간당 \$16.50에서 \$30까지 지급한다. 이는 훈련기간에도 돈을 지불하지만 앞으로 약 몇 달간만 일하게 된다. <https://2020census.gov/en/jobs.html>에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 것은 내년

인구조사 요원(field staff” or “enumerators) 들이다. <https://2020census.gov/en/jobs.html>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내년 설명서와 함께 센서스 질문지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법적 의무인 질문에 답신을 요구하는 기간이 되면 ‘현장 요원(field staff)’ 또는 ‘조사요원(enumerators)’ 채용이 대규모로 시작된다. ‘무응답자 추적’ 작업의 대부분은 거주자가 질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주소지에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려 질문지를 받아내는 일이다.

2010년의 경우 한 사람의 센서스정보를 수집하는데 드는 비용은 \$92이었으며 이는 1970년의 \$16에 비해 크게 상승한 비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센서스국은 온라인 신청으로 상당한 경비 절감을 희망하고 있다.

범죄경력 조회에 있어서는 주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탈락하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이중 언어 구사자는 소수민족 커뮤니티에는 필수적이다.

센서스국은 주급으로 돈을 지급하며 차를 사용하는 경우 차량 사용비를 지급한다. 비록 대부분의 센서스 직은 임시직이지만 때로는 이것을 통해 평생직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센서스국은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장려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관장으로 에브리타임 활력충전!

3월 31일 까지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Mild 100g 증정

**Event 2**



홍삼정 골드, 홍천옹 구입시  
홍삼정 마일드 10파우치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판매처 방문예치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원숙함과 따뜻함이 가득했던 백혜선 피아노 독주회

변하지 않는 열정과 테크닉 선보여, 예술협회 지원 호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양한 예술을 장려하고 후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를 위해 문화 단체를 후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뉴잉글랜드음악원(NEC) 백혜선 교수는 연주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피아니스트 백혜선 교수 독주회가 6월 14일 금요일 저녁 뉴잉글랜드음악원(NEC)내의 윌리엄스홀에서 개최됐다. 보스톤과 오랜 인연이 있으며, 작년 가을부터 모교인 뉴잉글랜드음악원의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백씨가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를 후원하기 위해 준비한 모금 콘서트였다.

연주자가 곡과 곡 사이에 자유롭게 관객에게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음악회의 분위기는 친밀하고 따뜻했다. 첫 곡은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던 베토벤의 론도 Op. 51 No. 1이었다. 간결하고 아름다운 주제부와 그 후에 이어지는 중간 부분의 대조적인 분위기가 섬세하게 잘 표현되었으며, 다음 곡인 <열정> 소나타를 위한 좋은 전주곡이 되었다.

첫 곡을 마치고 백씨는 “이 연주회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이 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다. 이제야 내 학생들이 이

무대 위에서 어떤 기분인지 짐작이 간다” 고 이야기해 많은 청중들의 웃음을 유도했다.

두 번째 곡은 피아니스트라면 누구나 공부하게 되는 교과서 같은 곡인 베토벤의 <열정>(Appassionata) 소나타였다. 백씨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긴박함을 놓치지 않는 능숙한 해석과 절제된 감정을 보여주었으며, 1악장부터 3악장까지를 관통하는 큰 흐름을 통해 곡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원숙함을 보여주었다.

이어진 쇼팽의 녹턴 두 곡(Op. 72 No. 1과 Op. posth.)에서는 자연스러운 루바토(유연한 템포)와 투명한 페달의 섬세한 연주가 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 시작된 라벨의 <라발스>(La Valse)에서는 오케스트라적인 악기라고 불리는 피아노의 다양한 음역, 음색, 음질, 연주 기법 등을 변화무쌍하게 보여주며 3박자 왈츠 리듬 위에 화려한 테크닉과 파워를 엮은 열정적인 마무리로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양폴 곡으로는 미국 작곡가 조지 거슈윈의 <Someone to Watch Over Me>와 리스트의 <사랑의 꿈>(Liebestraum)을 접속곡으로 연주하여, 듣는



피아니스트 백혜선 교수 독주회가 6월 14일 금요일 저녁 뉴잉글랜드음악원(NEC)내의 윌리엄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김용현 총영사 부부를 비롯한 130여 명의 많은 참석자들은 음악회 이후에 이어진 리셉션에서 백씨와 인사하고 격려와 감사를 나누었다.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과의 데이비드 맥켄 명예교수는 아름답고 시적인 연주를 진심으로 즐겼다고 말했으며 현대 무용가인

자넷 박씨도 우아하고 훌륭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했다.

한미예술협회의 김병국 회장은 아시아 연주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고단한 중에도 훌륭한 연주를 들려준 백혜선씨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연주회의 수익금은 앞으로의 협회 활동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범 평화통일 걷기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서울대동창회 산우회는 이스턴(Easton)에 위치한 보더랜드 주립공원(Borderland State Park) 범 평화통일 걷기대회를 6월 25일 화요일 아침 10시에 시작한다.

걷기 대회 참가비는 \$10이며 태극기를 지참하고 참가하는 경우 \$5로 할인된다. 걷기 대회는 각자 능력에 맞게 걷고 점심 때에는 맨션 앞 피크닉 테이블에서 피자도 점심을 대신할 계획이다.

주립공원은 주차비 \$5를 부과한다. 매사추세츠 주민이며 시니어인 경우 \$10을 지급하면 모든 주립공원 주차료가 평생 무료이다.

주소: 259 Massapoag Ave, North Easton, MA 02356

bostonkorean@hotmail.com



#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밤10시까지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 거액 병원비 폭탄, 아웃오브네트워크 진료 비용을 아십니까?

## 병원 사전공지 안해 보험사도 부담 거부

▶▶ 1면에 이어서

용 청구의 원인이 된 두 의사가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네트워크 밖(Out of network)의 의사로 자신들의 진료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의사 그룹 소속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자의 건강보험 밖 의사들을 병원들이 고용해 과도한 의료비용청구를 유발시키는 것은 비단 매사추세츠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스턴글로브는 지적했다. 당연히 분노한 환자들은 병원 측이나 건강보험사와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스턴글로브가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총 115 환자들이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에 갑작스런 의료비용에 관한 불만을 접수했다. 이 같은 불만 접수의 35%가 네트워크 밖 의사들의 진료비 청구였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내 의사 진료비용보다 200%가량 비싸다.

병원들이 자신들이 계약한 건강보험사들이 커버하지 않는 의사가 병원 내에서 진료하게 하는 것은 종종 있어왔다. 특히 네트워크 밖 의사들은 대장내시경을 보조하는 마취과 의사들, 응급실 정형외과 및 심장과 의사들 그리고 방사선과 및 병리과 의사 등이지만 환자들이 의사가 네트워크에 속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눈 부상을 입은 한 남성이 뉴튼 웰슬리병원의 응급실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밖의 의사의 진료를 받아 무려 \$7%의 청구서를 받았다. 다행히 병원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치명적인 감염병을 앓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으나 병원에 침상이 없는 관계로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밖의 응

급차를 이용한 관계로 \$2,079.08의 의료청구서를 받게 됐다.

상당수의 환자들은 수백불의 의료비용이었지만 약 10여명이 넘는 환자들은 수천불이었다. 최고 네트워크 밖 비용청구는 케임브리지 헬스 얼라이언스에서의 실험실 테스트 비용으로 \$4,600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밖 병원비용 규모는 엄청나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거주하는 리브 캐논(Liv Cannon, 28)은 척추수술을 받고 수십년의 허리 고통에서 벗어났다. 희귀척추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수술로 제거한지 1년후 캐논 씨는 \$94,000의 병원비용을 청구 받았다. NPR에 따르면 캐논 씨의 보험사인 블루크로스블루실드(BCBS)는 모든 수술비용 등을 커버했지만 뉴로모니터링(neuromonitoring) 서비스의 총 청구내역 \$94,031 중 \$815.69만 커버하고 나머지는 캐논씨 부담이라고 밝혔다. 뉴로모니터링 서비스가 네트워크 밖 시술이었기 때문이다. 병원은 이 서비스가 네트워크 밖의 서비스인 것을 사전에 알려야 했었다.

사우스쇼어나 에머슨 병원은 이 같은 네트워크 밖 의사들의 의료비용청구는 아주 드문 사례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병원과 같은 건강보험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마취과의 응급실 의사를 고용한 그룹들도 환자들 및 보험사와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환자들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부과한 의사협회들은 환자들이 지불을 거부하자 이를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겨 대처하고 있다.

특히 병원측과 건강보험 회사들은 환자들의 거둬들인 전화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의료비용청구에 대해서 때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 환자는 무려 20번이나 전화를 했다. 많은 환자들은 전화를 해도 거의 대부분 응답을 듣지 못했다.

주의 건강보험 비용을 감독하는 매사추세츠



Julia Robinson for Kaiser Health News

건강보험정책위원회(Helath Policy Commission)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1년동안 약 1만명의 매사추세츠 환자들이 소위 “네트워크 밖 진료”를 사유로 갑작스런 의료비용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광범위한 네트워크 의사들을 보유한 지역 건강보험사 블루크로스블루실드(BCBS)와 텡스웰스플랜(THP)만 이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했다.

에트나(Aetna), 시그나(Cigna), 그리고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 등 대형 미 전국적 건강보험사들처럼 대부분의 병원들과 계약했지만 각 지역의 의사그룹들과는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네트워크 밖 의사들의 높은 의료비용은 건강보험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트나와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의사그룹들이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그룹에게 공을 넘겼다. 또한 의사들이 네트워크 밖 의사 인지를 고지하지 않는 병원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규모 네트워크 회사들은 오히려 전국적인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자신들을 네트워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매사추세츠는 소비자 보호법이 일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매사추세츠의 약 60%에 달하는 상업적 건강보험회사들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못한다며 빠른 주법 제정을 권장했다.

이 같은 문제가 산적하자 점차 많은 주들은 네트워크 밖 의사들의 진료비용 청구비용의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과다 의료비용 청구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뉴욕과 쉐네티컷은 이 같은 법안이 제정되어 있지만 매사추세츠는 네트워크 밖 의료비용 요율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주요 의회지도자들은 올해는 이 법안 통과가 올해 최우선임을 밝히고 있으며 미 연방 상원에서 이 같은 이슈를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의사그룹, 건강보험사,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 모두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소비자들은 의사가 건강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의사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적절하게 조율된 금액의 네트워크 밖 의사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의견을 같이 했다.

hsb@bostonkorea.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갑작스런 의료비청구 어떻게 대처하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아웃오브네트워크 의료비용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청구된 상태에서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컨슈머 리포트는 이처럼 아웃오브네트워크 의료비용에 대처하는 방법을 조언했다.

거액 의료비용은 대부분이 건강보험 회사의 네트워크 밖에 있는 의료진에게 의료시술을 받았을 때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네트워크 밖(out-of-network) 의료시술을 피해야 한다.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비교적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쉽다.

무릎수술이나 출산의 경우 병원의 의료비 담당직원에게 미취과, 방사선과 등 수술에 참가할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한다. 이후 건강보험사에 전화해서 모든 시술자들이 네트워크 내(in-network)의 사람인지 확인한다. 온라인 정보는 업데이트가 안됐을 수도 있으니 신뢰해서는 안된다. 수술담당에게 인네트워크 시술자(in-network providers)만 원한다고 밝혀야 한다.

응급상황에서는 누가 네트워크 소속 의사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응급실(ER)에 가기 전 어떤 인근 병원이 건강보험 네트워크 소속 병원이며 또 네트워크 소속 응급실 의사를 이용하는지 알아둬야 한다.

앰블런스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소속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는 구급대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응급차는 정말 응급상황에서만 이용하고 자신의 차로 이동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만약 거액의 의료비용을 청구 받았다면 병원과 건강보험사에 전화해야 한다. 비 네트워크 사람이 시술에 관여할지 물었다고 설명해야 한다. 일부 비네트워크 의료진은 보험사의 지급에 동의하고 나머지 금액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는 보험사와 비네트워크 의료진이 비용을 낮추는데 동의할 수도 있다.

만약 응급치료 또는 응급차 비용을 청구 받는 경우, 구급대 또는 응급실 의사에게 어떻게 이곳에 이송됐으며 치료가 필수적이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다.

아무런 방법도 통하지 않을 경우 각 주의 건강보험국에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 협상력을 강화하는데 이 불만 접수는 지렛대로 작용한다.

주 보험부에 연락을 취하거나 컨슈머 리포트가 제시하는 각 주별 거액병원 비용 대처 방법(ConsumersUnion.org/insurance-complaint-tool)을 이용해 불만을 접수할 곳을 확보한다. 또한 환자옹호재단의 상담사 도움(1-800-532-5274) 또는 patientadvocate.org에서 도움을 청한다.

hsb@bostonkorea.com



이날 학예발표회는 흥부 & 놀부반이 <꽃게우정>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종강 여름방학

### 감사와 감동으로 함께한 2세들의 학예발표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튼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가 2019학년도 종강식과 학예발표회를 갖고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이정설 교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시상식 행사에서 남일 교장은 “올해에도 열심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드리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며 개회사를 대신했다. 김효정 학부모 회장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매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정기 바자회 등 학부모회 여러 사업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고 말했다.

학부모회는 지난 한해 동안 학부모회 사업을 통해 저축한 기금을 학교에 전달했다. 이어 변옥화 직전회장은 임기를 마치는 김효정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신임 임선희 회장의 소개 순서가 진행됐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김영순, 김소희, 강승연, 김정자, 남선경, 이성희

, 김희현 교사 등 장기근속교사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이임하는 송석규, 신민영 교사에게도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노진, 윤지현, 최서경 학생(이상 중급3 한국반)은 2019학년도 SAT 한국어 모의고사 우수점수상을 대표로 받았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우리말 평가상은 나하준·안수민 학생(기초2)이 대표 수상했다. 개근상은 송윤과 새라킨즈먼 학생(고급1과정), 정근상은 김수지·허선희 학생이 대표로 수상했다. 또한 과정 수료증은 김아윤, 기예성, 임필립(기초과정), 배지훈(초급과정), 정동준(중급과정), 소니아켈리(세종과정) 학생이 대표로 받았다.

3부 학예발표회에서는 발레반(이영미 교사)과 태권도반(도널드 사범)의 시범에 이어 PTO-한라반의 춤바콜라보(지도 박영신), 사물놀이반(겨울-한글반/김경선 교사)의 ‘웃다리 풍물’, ‘영남가락’ 연주 등이 이어졌다.

3부 행사는 음악교육부 신민영, 윤자영, 서채송 교사의 반주와 지도로 각 반 학생들이 공연을 선보였다. 병

아리반은 <싱글빙글>, 해님반-달님반은 <씨앗>, 봄반은 <동물소리 흥내>, 토끼반은 <어린음악대>, 거북이반은 <봄봄봄>을 공연했다.

이어 금도끼 & 은도끼반의 <오빠생각>, 여름반의 <모두다 뛰놀자>, 가을1 & 2반의 <눈눈, 숫자노래>, 여름반 BTS 춤 공연이 있었다. 이날 학예발표회는 흥부 & 놀부반이 <꽃게우정>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또한 미술 1반(지도 강현희), 민화반(지도 강승연)의 작품 전시와 함께 서예반(지도 정성렬)의 붓글씨 전시회가 열려 큰 관심을 받았다. 전교생과 가족들은 학부모회에서 후원한 점심을 나누며 각 학급에서 개별 종강식을 가졌고 교사들은 종무식을 가졌다.

지역 최대 규모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9월 7일 신입생 개학에 이어 9월 21일에 전교생 개학식을 갖는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2세 교육을 위한 교사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교사 신청 문의 등은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 또는 전화(508-523-5389)와 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 여름방학을 맞아 돌아온 '프리 펀 프라이데이'

## 10번의 금요일 동안 100개의 박물관이 무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여름방학 동안 금요일마다 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되는 '프리 펀 프라이데이'가 돌아온다. 100개 이상의 기관들이 6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돌아가며 참여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는 '프리 펀 프라이데이'는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다. 작년 한 해 15만 5천명이, 2009년 이래로 총 130만명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박물관을 방문했다.

올해 해버힐 인쇄 박물관(7월 5일), 애크보로 카프론 동물원(8월 30일), 탑스필드의 입스위치 강 야생 동물 보호구역(8월 30일)이 새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는 박물관으로 아이들을 위한 체험형 박물관인 보스톤 어린이 박물관(7월 19일), 미국의 민속촌인 올드 스티브릿지(8월 30일), 보스톤을 대표하는 예술 기관인 보스톤 미술관(7월 12일), 이자벨라 스투어트 가드너 미술관(7월 26일) 등이 있으며 뮤지컬 공연과 연주회로는 커먼웰스 셰익스피어 컴퍼니(7월 26일), 탱글우드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8월 2일), 스톡브리지 버크사이어 연극단(8월 16일)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하이랜드 스트리트 파운데이션은 1989년 설립되어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 주 어린이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아래는 이번 여름 무료로 입장 가능한 100곳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highlandstree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bostonkorea.com

### June 28

- Lyric Stage Company of Boston, Boston
- Cape Ann Museum, Gloucester
- Clark Art Institute, Williamstown
- MIT Museum, Cambridge
- Nichols House Museum, Boston
- Norman Rockwell Museum, Stockbridge
- Plimoth Plantation, Plymouth
- The Mount: Edith Wharton's Home, Lenox
- Wenham Museum, Wenham
- Worcester Art Museum, Worcester

### July 5

- Cape Cod Maritime Museum, Hyannis
- Amelia Park Children's Museum, Westfield
- Falmouth Museums on the Green, Falmouth
- Pilgrim Hall Museum, Plymouth
- Children's Museum, Easton
- Edward Gorey House, Yarmouth Port
- Jacob's Pillow, Becket
- Museum of Printing, Haverhill
- The Old Manse, Trustees, Concord
- The Telephone Museum, Waltham

### July 12

- Museum of Fine Arts, Boston
- The Hall at Patriot Place, Foxborough
- Children's Museum of Greater Fall River, Fall River
- Gloucester Stage Company, Gloucester
- New England Quilt Museum, Lowell
- Smith College of Art, Northampton
- Springfield Museums, Springfield
- Charles River Watershed Association, Weston
- Chesterwood, Stockbridge
- Mahaiwe Performing Arts Center, Great Barrington

### July 19

- Boston Children's Museum, Boston
- Arnold Arboretum, Boston
- Battleship Cove, Fall River
- Cape Cod Children's Museum, Mashpee
- Peabody Essex Museum, Salem
- Sandwich Glass Museum, Sandwich
- Eric Carle Museum of Picture Book Art, Amherst
- New England Historical Genealogical Society, Boston
- Nantucket Maria Mitchell Association, Nantucket

### • Spellman Museum of Stamps & Postal History, Weston

### July 26

- 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 Boston
- Edward M. Kennedy Institute for the U.S. Senate, Boston
- Cape Cod Museum of Art, Dennis
- Commonwealth Museum, Boston
- Larz Anderson Auto Museum, Brookline
- The Gardens at Elm Bank, Wellesley
- Ventfort Hall Mansion & Gilded Age Museum, Lenox
- Commonwealth Shakespeare Company, Boston
- Fitchburg Art Museum, Fitchburg
- Historic Deerfield, Deerfield

### Aug. 2

- Franklin Park Zoo, Boston
- Old State House, Boston
- Boston Symphony Orchestra at Tanglewood, Lenox
- Chatham Shark Center, Chatham
- Children's Museum of Holyoke, Holyoke
- Concord Museum, Concord
- International Volleyball Hall of Fame, Holyoke
- Lynn Museum, Lynn
- Museum of Russian Icons, Clinton
- Naumkeag, The Trustees, Stockbridge

### Aug. 9

- Boston Harbor Islands National and State Park, Boston
- Davis Museum at Wellesley College, Wellesley
- Gore Place, Waltham
- Hancock Shaker Village, Pittsfield
- JFK Hyannis Museum, Hyannis
- New Bedford Whaling Museum, New Bedford
- Old Colony History Museum, Taunton
- Worcester Historical Museum, Worcester
- Museum of the National Center of Afro-American Artists, Boston
- The Greenway Carousel, Boston

### Aug. 16

-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Boston
- USS Constitution Museum, Boston
- Berkshire Theatre Group, Stockbridge
- Cahoon Museum of American Art, Cotuit

**Your Ticket to FREE Summer Fun!**  
**100 VENUES! 10 FRIDAYS!**

**FRIDAY 28 JUNE**  
Lyric Stage Company of Boston, Cape Ann Museum, Clark Art Institute, MIT Museum, Nichols House Museum, Norman Rockwell Museum, Plimoth Plantation, The Mount: Edith Wharton's Home, Wenham Museum, Worcester Art Museum

**FRIDAY 05 JULY**  
Amelia Park Children's Museum, Cape Cod Maritime Museum, Falmouth Museums on the Green, Pilgrim Hall Museum, Children's Museum, Edward Gorey House, Jacob's Pillow, Museum of Printing, The Old Manse, The Telephone Museum

**FRIDAY 12 JULY**  
Museum of Fine Arts, The Hall at Patriot Place, Children's Museum of Greater Fall River, Gloucester Stage Company, New England Quilt Museum, Smith College of Art, Springfield Museums, Charles River Watershed Association, Chesterwood, Mahaiwe Performing Arts Center

**FRIDAY 19 JULY**  
Boston Children's Museum, Arnold Arboretum, Battleship Cove, Cape Cod Children's Museum, Peabody Essex Museum, Sandwich Glass Museum, Eric Carle Museum of Picture Book Art, New England Historical Genealogical Society, Nantucket Maria Mitchell Association

**FRIDAY 26 JULY**  
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 Edward M. Kennedy Institute for the U.S. Senate, Cape Cod Museum of Art, Commonwealth Museum, Larz Anderson Auto Museum, The Gardens at Elm Bank, Ventfort Hall Mansion & Gilded Age Museum

**FRIDAY 02 AUGUST**  
Franklin Park Zoo, Old State House, Boston Symphony Orchestra at Tanglewood, Chatham Shark Center, Children's Museum of Holyoke, Concord Museum, International Volleyball Hall of Fame, Naumkeag, The Trustees

**FRIDAY 09 AUGUST**  
Boston Harbor Islands National and State Park, Davis Museum at Wellesley College, Gore Place, Hancock Shaker Village, JFK Hyannis Museum, New Bedford Whaling Museum, Old Colony History Museum, Worcester Historical Museum, Museum of the National Center of Afro-American Artists, The Greenway Carousel

**FRIDAY 16 AUGUST**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USS Constitution Museum, Berkshire Theatre Group, Cahoon Museum of American Art

**FRIDAY 23 AUGUST**  
The Mount: Edith Wharton's Home, Wenham Museum, Worcester Art Museum

**FRIDAY 30 AUGUST**  
Cape Ann Museum, Clark Art Institute, MIT Museum, Nichols House Museum, Norman Rockwell Museum, Plimoth Plantation, The Mount: Edith Wharton's Home, Wenham Museum, Worcester Art Museum

Please visit: [HighlandStreet.org](http://HighlandStreet.org) or call: 617.968.8900 for more information

- Discovery Museums, Acton
- Fuller Craft Museum, Brockton
- Harvard Museums of Science & Culture, Cambridge
- Provincetown Art Association and Museum, Provincetown
- Paragon Carousel, Hull
- Fruitlands Museum, The Trustees, Harvard
-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Boston
- Berkshire Museum, Pittsfield
- Boston Athenaeum, Boston
- Buttonwood Park Zoo, New Bedford
- Emily Dickinson Museum, Amherst
- The Mary Baker Eddy Library & Mapparium, Boston
- Fort Devens Museum, Devens

- Freedom Trail Foundation, Boston
- Heritage Museums & Gardens, Sandwich
-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Boston and Nantucket
- Old Sturbridge Village, Sturbridge
- EcoTarium, Worcester
- Capron Park Zoo, Attleboro
- MASS MoCA, North Adams
- Mass Audubon's Ipswich River Wildlife Sanctuary, Topsfield
- Cape Cod Museum of Natural History, Brewster
- Museum of the First Corps of Cadets, Boston
- Hull Lifesaving Museum, Hull
- Osterville Historical Museum, Osterville
- Griffin Museum of Photography, Wincheste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티보플레이 1+1 호도이벤트**

티보플레이 1+1 호도이벤트  
1+1 호도이벤트  
티보플레이 1+1 호도이벤트  
티보플레이 1+1 호도이벤트

다작하시고 싶으세요?  
NEW 티보플레이  
티보플레이 1+1 호도이벤트  
티보플레이 1+1 호도이벤트

617-949-1766



보스톤 인근의 카지노 앙코르보스톤하버가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공식 개장한다

# 앙코르 카지노 23일 공식 오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인근의 카지노 앙코르보스톤하버가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공식 개장한다. 26억달러가 투자됐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앙코르 보스톤 카지노는 주 7일 24시간 영업한다. 앙코르에는 30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대중 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철이용시**  
오렌지 라인의 웰링턴 또는 몰든센터 역에서 하차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무료 셔틀버스는 매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블루라인 윈더랜드 역에서도 매 20분 간격 셔틀이 운행된다.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  
주차비는 6시간에 \$22이며, 24시간 주차비는 \$42이다.

**버스이용시**  
앙코르네이버 후드러너 (Encore

Neighborhood Runner)는 24시간 첼시 실버라인스탑과 에베렛 시청, 리버그린 주차장과 카지노를 직통으로 운행한다. 뉴햄프셔 런던데리, 락랜드, 밀버리에서 \$7에 운행하는 프리미엄버스도 있다.

**보트이용시**  
월드트레이트 센터와 롱와프에서 앙코르까지 \$7에 운행한다.

**숙박**  
총 67개 호텔룸과 스카가 마련되어 있다. 프리미어 킹베드룸이 하룻밤에 \$711이다. 선택하는 날짜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변동된다.

**카지노**  
88개의 포커 테이블과 3,158개의 슬롯 머신, 143개의 블랙잭, 바카라 등 테이블이 있다. 게임을 하는 중에 음료와 술은 무료이며 마지막 주문은 새벽 4시까지이다. 일반적으로 서버에게 \$1의 팁이 기본이다.

식당

앙코르 보스톤에는 총 15개의 바와 레스토랑이 준비되어 있다.

**미스탁:** 스시 및 아시안 요리  
**워터프론트:** 와인 및 수제 맥주 바  
**오이스터바:** 오이스터, 클램, 크랩, 랍스터

**프레텔라:** 남부 이탈리아 요리  
**레드8:** 홍콩식 누들과 비비큐 딥섬 등 온데버거바: 버거

**시나트라:** 클래식 이탈리아 레스토랑  
**레어스테이크하우스:** 미국 또는 외국

**산 고급 스테이크, 강변 전경**  
**가든 카페:** 아메리칸 레스토랑

**더 버페:** 국제적인 뷔페 식당  
**브루:** 에스프레소 라테 등 커피와

**던킨 커피**  
**센터바**

**가든 라운지:** 칵테일 바  
**메미어:** 최고 DJ가 출연하는 나이트

**클럽**

hsb@bostonkorea.com



## 서울대학교 동창회 2019 년도 장학금 수여식 및 정기 총회

뉴잉글랜드 동창회 차기 회장 이강원 동문 인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동창회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윤은상, 상대 '66)가 벌링톤 소재 세븐 스프링스 클럽하우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겸한 정기 총회를 6월 15일 토요일 가졌다.

화창한 날 진행된 총회에는 모정자(문리대 '50) 대선배부터 최민석(사대 '07) 젊은 세대까지 50여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했다. 회고 제창으로 시작된 총회는 김정선(문리대 '66) 동문이 준비한 슬라이드 쇼를 감상하며 지난 회기의 여러 모임들을 회상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회기 사업 및 재무 보고, 회칙 수정, 차기회장 인준 등 이사회 의결사항을 인준하고, 뉴잉글랜드 한인 커뮤니티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한 2019년도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올해의 장학생으로는 공정하고 세심한 평가를 거쳐, 브루클라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메스 앰허스트에 총장 장학생으로 진학하는 김유정, 유메스 앰허스트에 재학 중인 앤드류 리 학생, 서울대 사대를 졸업하고 버클리(Berklee) 음대에 재학 중인 최민석 동문, 노스이스턴 약학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고예지 씨 모두 4명에게 각각

\$1,000 - \$1,500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이영인(사대 '74) 장학위원장은 2배수의 지원자들 중에서 선발한 심사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뉴잉글랜드 한인 사회에 기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장학기금을 기부한 이재신(공대 '57), 윤상래(수의 '62), 박영철(농대 '64), 정선주(간호 '68) 동문이 장학금을 직접 수여하였다. 김용구(공대 '66) 동문은 여행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수상자 중 음악을 전공하는 최민석 씨가 우쿠렐레를 연주하여 동문들을 즐겁게 하였다.

총회에서 이강원 동문(공대 '66)을 차기회장으로, 김정선 동문(문리대, '66)을 차차기 회장으로 인준하고, 그동안 동창회를 위해 기여한 윤상래(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장), 박영철(전 뉴잉글랜드지부 회장), 김정선(뉴잉글랜드지부 산우회장)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특히, 윤상래 미주총동창회장의 노고와 헌신에 여러 선후배들이 찬사를 보내고 감사를 표했다.

서울대 동창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 사항은 동창회 페이지 (sites.google.com/site/snuane)를 참조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 청소년 자살률 최근 급격히 상승

## 15세에서 24세 사이 자살률 급증 2015-2017 사이에 매년 14.2% 증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미국내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 자살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하버드 의학 대학교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국 내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을 분석하였다. 이 기간 동안 15세에서 19세 사이의 10대 자살률은 47%가 증가하였고,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자살률도 36% 증가하였다. 전 연령대의 자살률이 평균 30%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10대를 포함한 젊은 층의 자살률이 훨씬 높게 증가한 것이다.

미국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수년 동안 나이와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한 것은 이번 하버드 대학교의 보고서가 처음이다.

미국 의학 협회에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하버드 의대의 오랜 미련 연구 교수는 “사람들은 자살률이 계속해서 증

가하고 있다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 오르고 있다” 며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다” 고 말했다.

미련 교수가 지적하는 것은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자살률이 일반적인 경향을 벗어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자살률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소

폭 줄어들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매년 3.1% 정도만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매년 14.2%씩 증가해 큰 차이를 보인다.

2017년에만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젊은이 6,241명이 목숨을 끊었다. 이 중 80%가 남자였다.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자살과 가장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통제 계열 약물 오남용에 따른 사망이다. 미련 교수는 두 현상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앞으로의 연구에서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자살률이 일반적인 경향을 벗어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렌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카트 레이싱 트랙이 문을 열었다

## 세계 최대 실내 카트 레이싱 트랙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대규모 아울렛 쇼핑몰로 유명한 렌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카트 레이싱 트랙이 문을 열었다.

591 워싱턴 스트리트에 위치한 슈퍼차지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주에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갖고 영업을 시작했다. 12에이커 규모의 이 시설에서는 카트 레이싱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락 시설을 즐길 수 있다. 슈퍼차지 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트 레이싱을 위한 트랙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만 스퀘어 피트의 크기를 자랑한다. 키가 4피트 10인치 이상이면 누구나 18마력의 카트를 운전할 수 있다.

이외에도 텔레비전 쇼 “아메리칸 난자 워리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다양한 장애물 코스 “닌자 와이프아웃 아레나”가 있으며, 트렘펄링을 즐길 수도 있다. 건물 내에는 주류 판매점과 레스토랑도 있고, 개인과 단체 손님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가 있다.

jsi@bostonkorea.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함을 이용해보세요!

# 강남지인병원

## GANGNAM GIE HOSPITAL

★ 미주, 캐나다 무료전화 (Call for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김수남**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지인처럼 편하게, 지성으로 진료하는 강남지인병원**

강남지인병원 건강검진센터는 대학병원, 대형건강검진센터에서 도입한 최신 혈액검사, 초음파, 128채널 CT 등 최신허 플랫폼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상진료와 연계되는 검사장비를 투입하여 실제로 내 건강과 연관있는 맞춤형 검사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강남지인병원은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관

대기실

소회기대시정원

진료실

병실

수술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31(논현동) 강남지인병원 (구 다산재단동)    대표번호 02-6935-4119    www.giehospital.co.kr

**종합검진 기본항목**

검사기본진료(신체계측동), 안과(안저,안압), 폐기능, 체성분, 심전도, 흉부촬영, 중앙표지자검사, 부인과검사(자궁, 유방), 혈액종합검사(70여가지), 소변검사, 구강검사등

**휴함 당일검진 프로그램 → 53만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위내시경(수면), 초음파(갑상선, 상복부, 복부대동맥, 공동맥, 전립선(남), 유방(여), 허벅지(여), 뇌혈류) + 동맥경화검사, 스트레스-직대검사, 심장초음파, 흉부CT, 심장석회화CT, 생체나이검사

**휴함 숙박검진 프로그램 → 60만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위내시경(수면), 초음파(갑상선, 상복부, 복부대동맥, 공동맥, 전립선(남), 유방(여), 허벅지(여), 뇌혈류) + 동맥경화검사, 스트레스-직대검사, 심장초음파, 흉부CT, 심장석회화CT, 생체나이검사

**휴함 정밀검진 프로그램 → 95만원**

**휴함 숙박검진 프로그램+**  
혈액검사 추가 + 복부CT(조영제 포함) - 관상동맥CT + 90MR, NIMRA

◆ 1박2일(1인실객실) / 입원료(중세비 제공) / 당일모든 4시 입원 - 당일 오후 12시까지

2019  
LEE SUNHEE CONCERT  
**climax**  
Mohegan Sun Arena  
07.27.2019 Sat. 8PM  
\$250/ \$200/ \$150/ \$120/ \$90  
Tickets: (718) 358-1651 | info@jhlenterprise.com

Offline Ticket Sale Flushing NY / Hicksville NY / Ridgefield NJ  
Online Ticket Sale http://hotdeal.koreadaily.com Tel. (213) 784-4628  
Shuttle Bus Tel: (888) 508-9793 Presented by JHL Enterprise  
 jhlenterprise jhlenterpriseNY

ASIANA AIRLINES MOHEGAN SUN a world at play

ASIAN HOTLINE: 877.999.9977 | MOHEGANSUN.COM/888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걱정만 준비하는 성인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mlee@mbamortgageco.com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 팁 받는 직원도 같은 최저 임금 받아야?

## 의회서 팁 받는 직원 최저 임금 논의 비즈니스, 소비자 부담 반대 의견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십여 명의 시민들이 팁을 받는 직원들도 일반 직원들과 똑 같은 최저 임금을 보장 받아야 한다며 매사추세츠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18일 의회에서 최저 임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 전 의회 건물 앞에서 행진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

팁을 받는 직원들도 다른 일반적인 직원들과 똑 같은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팁을 얼마나 받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수입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팁으로 생활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트리샤 페레이-부비어 하원의원(공화)은 팁을 받는 직원들이 일반 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최저 임금을 받게 되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페레이-부비어 의원은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가난한 지역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팁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빈곤층을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다” 고 말했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에서 팁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직원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4.35달러다. 반면에 팁을 받지 않는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2달러다. 페레이-부비어 의원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팁을 받지 않는 근로자와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같은 수준으로 정할 경우 빈곤층의 비율이 20%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레스토랑 연합에서는 팁을 받는 직원들의 최저 임금을 팁을 받지 않는 직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레스토랑 연합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의 식당에서 일하는 서버들은 팁을 포함해 시간당 평균 30달러를 벌고 있다. 레스토랑 연합은 매사추세츠에서 팁을 받으며 일을 하는 종업원들은 이미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최저 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mailto:jsi@bostonkorea.com)



팁을 받는 직원들도 일반 직원들과 똑 같은 최저 임금을 보장 받아야 한다며 매사추세츠 의회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 찰스강수질 A에서 B등급으로 낮아져

## 보트타기 가능, 일부 수영 가능 등급으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환경보호국(EPA)이 찰스강의 2018년 수질 등급을 낮췄다.

EPA는 6월초 찰스강변에서 발표한 2018 수질 등급 기자회견에서 찰스강을 지난해 A등급에서 두단계 낮은 B등급으로 강등시켰다. EPA는 지난 24년간 찰스강의 수질을 측정해 발표해왔다.

환경보호국 1지역 드보라 스자로는 찰스강의 수질을 매달 워터타운 댐에서부터 보스톤 항구에 이르기까지 10개 다른 지점에서 샘플을 검사해 올해 찰스강의 수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A등급수는 언제나 보팅과 수영이 가능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B등급수는 모든 보팅과 일부 수영이 가능한 기준을 만족한 경우이며, C등급수는 일부 보팅 및 수영이 가능한 기준을 말한다. D등급수는 일부 보팅은 가능하나 수영은 불가능한 수질이며 F는 수영이나 보팅이 불가능한 수질을 가리킨다.

찰스강의 수질이 B급으로 강등됨에 따라 사실상 찰스강에서의 일반적인 수영은 금지된다. 특별한 이벤트에서만 수영이 가능하다. EPA에 따르면 2018년 맑은 날 94%의 수질은 보트에 적합했으며 66%는 수영에 맞는 박테리아 수준의 수질을 보였다. 우천시에는 91%보트가능, 47%가 수영에 적합한 수질을 보였다.

EPA의 수질 측정을 밀접하게 돕고 있는 찰스강수역협회 에밀리 노튼대표는 "찰스강의 수질이 낮아진 것이 실망스럽지만 결코 놀랍지않은



않다. 지난해 너무 많은 비가 왔는데 이 빗물이 찰스강으로 넘쳐 들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는 2018년 기록적인 강우량을 보였으며 빗물은 도시의 도로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들, 지붕위에 쌓인 오염물질들을 빗물 처리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강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만들고 있다.

노튼 대표는 "찰스강물을 오염시키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폭우로 인한 빗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빗물들은 가솔린, 비료, 쓰레기 메탈 그리고 기타 오염물질을 강으로 흘러가도록 만든다. 특히 이들은 하수도처럼 처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박테리아 이콜라이균 등 다양한 독성물질도 포함된다. 특히 녹청색의 알개(algae)는 정말 독성이 강하고 위험하다.

현재 이처럼 폭우로 인한 빗물이 찰스강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 빗물을 강으로 내보내기 위해 각 지자체는 지역 분리폭우 하수 시스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환경국은 이 허가의 기준을 강화시켜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찰스강변 인접 타운들은 현재 빗물 유입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hsb@bostonkorea.com](mailto:hsb@bostonkorea.com)

#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mailto:thepeterginateam@gmail.com)





# 페이스북, '리브라' 암호화폐로 전세계 지불결제시장 도전장

## 전세계 금융소외인구 낮은 수수료로 송금, 결제 목표 택시비, 커피도 리브라로 결제 확장

(AP=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이 27개의 파트너사와 함께 내년부터 메신저 기반의 암호화폐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터(WP) 등 외신은 페이스북이 내년까지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 등에서 암호화폐로 물건 구매와 송금이 가능토록 결제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명칭은 '리브라(Libra)'로 정해졌다

WP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장기적으로 소셜네트워크 밖에서도 리브라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 이 택시비를 지불하거나 커피를 사먹을 때도 리브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WP는 또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돼 있는 17억 명의 인구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송금을 자

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외신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도입에 나선 것은 최근 몇년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수익 성장이 둔화된 탓으로 설명했다. 광고 이외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비자, 우버 등도 같은 이유로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동참했다고 분석했다.

WP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기반 결제시스템 도입은 기존의 지불결제 시스템 생태계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WP는 리브라가 베네수엘라 등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개도국 사용자들이 현금 저장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자들 역시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리브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리브라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독립적인 비영리 기구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 관리한다. 정부 발행 통화 바스켓(기준환율 산정을 위해 가중치에 따라 선정된 통화 꾸러미)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가치의 불안정성을 보완했다.

WP는 이와 관련해 "리브라가 베네수엘라 화폐인 볼리바르보다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리브라를 사용할 시 자신들이 재정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호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 페이스북 블록체인 책임자는 "리브라 전자지갑 개발을 맡게되는 페이스북의 새 자회사는 재무 데이터를 다른 자회사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ypark@news1.kr



위치기반 증강현실 게임 해리포터: 마법사 연합

## 해리포터 AR게임 21일 출시 제2 포켓몬고 될까

### '죽음의 성물' 이후 배경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7월과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1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뒤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했다.

골드만삭스의 시각은 갑자기 바뀐 것. 지난 1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연준이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미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성'으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는 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피력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이런 금리인하에 대한 장애물은 인식되고 있는 것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며 연준이 올해 안에는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준은 18-19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2.25~2.50%로 동결했다. 그러나 성명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0.5%포인트(p)까지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sy@news.kr

## 골드만삭스 입장 싹 돌아서...미 연준, 7·9월 금리인하 전망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7월과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1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뒤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했다.

골드만삭스의 시각은 갑자기 바뀐 것. 지난 1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연준이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미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성'으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는 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피력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이런 금리인하에

대한 장애물은 인식되고 있는 것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며 연준이 올해 안에는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준은 18-19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2.25~2.50%로 동결했다. 그러나 성명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0.5%포인트(p)까지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sy@news.kr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Chelmsford Beauty Academy

로웰에서 5분, 로렌스에서 15분, 벌링턴에서 10분, 앤도버에서 10분 거리

- 경험있는 교사진
- 90% 주보드 시험 통과후 바로 취업
- 풀타임 및 파트타임
- 매달 속눈썹 연장, 속눈썹 리프트, 눈썹 문신 훈련 클래스



## 뷰티 아카데미 수업 내용 및 시간

### 에스테틱스: 600시간

페이셜, 왁싱, 메이크업, 속눈썹 연장 등 포함

### 매뉴큐어리스트 : 100시간

매니큐어, 페디큐어, 아크릴릭 젤, 디핑 파우더 등 포함



60 Chelmsford st #2, Chelmsford MA 01824  
978.250.4488 978.987.3766

특스베리 소재 성업중인 네일살롱에서 네일 테크니션 구인중  
주급 \$800-\$1000  
978.967.6695, 978.987.3766

### 2개 대형 네일살롱 세일중

12개 스파 페디큐어, 10개 매니큐어 테이블

2 페이셜+ 왁싱 룸, 월마트가 있는 대형 플라자 내(가격 16만불 이상)



##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 손혜원 투기 스포킹건 '보안문건' 재판서도 인정될까

## 검 "개발정보 공무상 비밀"...손 "주민공청회서 공개" 자료 획득시점 기준 일반에 알려진 내용인지가 관건

(서울=뉴스1) 권혁준, 이철 기자 = 목포 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법정에서 계 됐다.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문건의 '보안성'이 인정될 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전날(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문건이었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부패방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목포시에서 (해당 문건)을 대외비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개발계획이나 개발 구역이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 봤다"면서 "이후 행정절차에서도 공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보안문건'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보안자료

로 지칭한 문서는 총 4쪽으로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의원실 회의에서 목포시가 가지고 온 문서'라며 "이 자료는 목포시와 손 의원실과의 미팅에 앞서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목포시는 2017년 5월 11일 진행한 주민공청회에서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라는 '공청회 자료를 PPT로 화면에 띄워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며 "이른바 '보안자료'는 공청회 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일 뿐이며, 공청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 측은 해당 문건을 받을 당시 목포시가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이후 압력을 넣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손 의원실 측은 전날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해 목포가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의 '보안성'이 인정되는 지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손 의원이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알게 될 당시 일반 대중에게도 알려진 계획인지, 그 이후에 알려진 것인지 시점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회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손 의원이 자료를 받은 시점 전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자료'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주민들에게 전해진 계획의 내용이 불특정하고 추상적이어서 계획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일반 대중에게 인지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이 문서를 건네받은 시점에 목포시가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역시 부패방지법 적용과는 결을 달리한다"면서 "해당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보안내용'을 이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의원은 변호인을 선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손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사법연수원 15기)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권영빈 변호사(법무법인 로윈·사법연수원 31기)를 선임했다.

iron@news1.kr

#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보안자료' 어떤 것?...논란 가열

## 박홍률 전 시장, 목포시 "비공개 문서 아니다" 밝혀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에 손의원 측 반박 '쟁점화'

(목포=뉴스1) 김영선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검찰이 기소한 가운데 이른바 '보안자료'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손 의원 측에서도 전해받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가 보안문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다 전남 목포시와 박홍률 전 목포시장도 보안자료가 아닌 공개된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공했다고 주장,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인과 재단을 통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를 사들 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목포시가 건넨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이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손 의원측은 물론, 박전임 시장과 목포시 등 관계자의 입장은 다르다. 비공개 기밀문서도 아니고 공청회 등에서 공개된 것을 애매하게 '보안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박홍률 전 시장은 20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지난 2017년 5월 18일 목포의 한 커피숍에서 손혜원 의원을 만나 문서를 전달했지만 같은 해 3월 용역보고회와 5월 시민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을 발췌, 시 현안자료로

설명한 것"이라며 "비공개 비밀문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에는 유달 만호동이 포함된 선창지구와 용당동, 대성동 등 도시재생 대상 6개 지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도면 등은 공청회에서도 설명자료로 공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손 의원은 자료를 받기 이전인 2017년 3~4월쯤 부동산 몇 채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근대역사 문화에 관심 있는 손 의원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자료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시도 이날 손 의원 투기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도시재생사업·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선정과 자료제공 등은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이 사업들은 공모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됐으며, 이후 시행 계획수립, 세부사업추진, 기타 자료 제공 등의 모든 행정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태빈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도시재생사업은 특성상 주민들과 공유하며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안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손 의원측은 목포시가 도시재생 지역 선정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보안자료'에 대한 반박 논리를 펴고 있다.

ysun1204@news1.kr

# 탁현민, 이연주 내 강연료 알려고 사람들 괴롭혀...내가 밝힌다

## 이연주 의원실 '자료제출 요구목록' 페이스북에 공개 "학교 100만 · 지자체 300만 · 기업 1550만원...이 의원은 1550만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19일 자신이 강연을 진행했던 곳을 대상으로 이연주 무소속 의원(재선·경기 광명시 을)이 강연료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강연료를 밝혔다.

탁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선일보와 이연주 의원이 저의 강연료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바쁜 분들 괴롭히지 마시길 바란다"며 "저는 가능하면 사양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는 100만원, 지자체나

단체는 300만원, 기업은 1550만원 균일 가"라고 적었다. 방송인 김재동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이 여러 기관을 상대로 이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연주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적힌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문서 사진을 함께 올렸다. 여기에는 '탁현민 행정관의 강연 관련' △강연 명, 행사명과 날짜 · 장소 △강사료 및 출연료 △행사의 전체 예산 상세 내역 △행사 관련 결과 보고서 등을 요청하

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탁 위원은 "공적 신분도 아닌 제 개인의 영리활동에 귀한 의정활동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국회의원이 이렇게 여기저기 강연비용과 내용을 받아보는 것은 참 신박한 블랙리스트 작성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덕분에 가기 싫은 강연은 알아서 줄어들겠다"고 밝혔다.

탁 위원은 덧붙여 "이연주 의원실에서 요청한다면 정중히 사양한다"고 했다. 그가 잠시 뒤에는 "이연주 의원실에서

요청한다면 그건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쪽은 1550만원이다"라고 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또한 탁 위원은 자료제출 요구목록

에 자신이 '행정관'으로 적힌 데 대해서도 "저는 행정관이 아니라 자문위원"이라고 정정했다.

truth@news1.kr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지난 5월 15일 오후 제주대학교 아라리우홀에서 제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획의 힘, 상상력의 힘'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H MART

##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JUNE 21st - JUNE 27th, 2019

### ROSÉ SPAGHETTI CHEF APPROVED!

NEW YORK RESTAURANT CHEF'S ROSÉ ALL DAY KIMCHI SPAGHETTI FROM NYC SOUS CHEF!  
뉴욕 레스토랑 수셰프가 만드는 로제 스파게티!  
김치의 시큼한 맛을 추가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스파게티를 H마트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 NEW RESTAURANT PARTNE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location for you. 필수 조건으로 성공확률을 극대화합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CONTACT me@hmart.com



<p>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30% FRISAT/SUN ONLY 21/22/23 ONLY <b>\$4.99</b></p>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b. <b>\$1.49</b></p>	<p>ZESPRI Sun Gold Kiwi 제스프리 선골드키위 box <b>\$20.99</b></p>	<p>Ataulfo Mango 아울포 망고 box <b>\$10.99</b></p>	<p>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box <b>\$22.99</b></p>
<p>Jackfruit 잭 프룻 lb. <b>\$0.99</b></p>	<p>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lb. <b>\$1.79</b></p>	<p>Packed Persian Cucumber 백 페르시아 오이 pkg. <b>\$1.49</b></p>	<p>Gobo 우엉 lb. <b>\$1.99</b></p>	<p>SOONYEONON Tofu 수녀원 두부 Soft/Silken/Firm 14-16oz./pkg. <b>\$0.99</b></p>

<p><b>MEAT   at unbeatable low prices</b></p>		<p><b>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b></p>	
<p>Fresh Beef Flank Steak 얇치마 양지(육개장) lb. <b>\$6.99</b></p>	<p>Chicken Wings 닭 날개 lb. <b>\$2.49</b></p>	<p>TONGTONGBAY Sliced Seasoned Dried Squid 통통배 훈진미채 16oz./pkg. <b>\$17.99</b></p>	<p>East Bay Korean Squid 동해안 선동 오징어 lb. <b>\$5.99</b></p>
<p>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비큐 생상겹살 lb. <b>\$6.99</b></p>	<p>Thinly Sliced Beef Brisket for Shabu Shabu 샤브샤브용 냉동 치폴박이 lb. <b>\$8.99</b></p>	<p>Chilean Seabass Steak 칠리안 세베스 스테이크 lb. <b>\$19.99</b></p>	<p>Head-on Louisiana Shrimp 머리있는 루이지애나 자연산 왕새우 10-15% lb. <b>\$7.99</b></p>
<p>Manned Sliced Pork CT Butt 양념 돼지 목살 lb. <b>\$4.99</b></p>	<p>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알찬순대 pkg. <b>\$8.99</b></p>	<p>Himego (Regular) 히메고 lb. <b>\$12.99</b></p>	<p>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b>\$6.99</b></p>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KAGAYAKI California Premium Short Grain Rice 계가이아 쌀 15 lbs. <b>\$21.99</b></p>	<p>KWAMECHUN Green Tea Seasoned Layer 공진 녹차김 0.77oz. x 7000/pkg. <b>\$9.99</b></p>	<p>HAJOREUM Dumplings 해오름 만두 All varieties - 2.65 lb./pkg. <b>\$4.99</b></p>	<p>I WANT Paper Towel 마이원트 페이퍼 타월 1200/16/pkg. <b>\$10.99</b></p>	<p>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b>\$9.99</b></p>	<p>CJ Cooked White Rice CJ 향떡 바스 7.4oz. x 1200./box <b>\$9.99</b></p>	<p>SAMYANG Ramyeon Spicy Flavor Noodle Soup 삼양 삼양라면 4.23oz. x 2300./box <b>\$10.99</b></p>	<p>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드셀 궁중당면 1.5 lbs. <b>\$2.99</b></p>	<p>SHIRAKIKU Tomosiriraga Somen Shirakiku Japanese Style Noodles 시라키쿠 소면 3 lbs. <b>\$3.99</b></p>
---	--	--	---	---	---	--	---	---

천년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千年的味道

<p>S&amp;B Golden Curry Sauce Mx 에스앤비 골든 커리 2.5 lbs. <b>\$14.99</b></p>	<p>ARIZONA FARM Honey Powder 아리조나 팜 허니 파우더 1 lb. <b>\$2.99</b></p>	<p>CALBEE Fruita Fruit &amp; Granola 칼비 프루그라 17oz. <b>\$6.99</b></p>	<p>NESTLE KitKat Matcha Chocoale 네슬레 킷캣 마차 초콜릿 4.7oz. <b>\$3.99</b></p>
<p>GLUCO Pocky Beauli Slicks 글루코 포키 All varieties 3.81-4.45oz. <b>\$2.99</b></p>	<p>ITOEN Milk Tea 이도엔 밀크티 Matcha/Black 11.81 oz. <b>\$2.93</b></p>	<p>Chinese Knife 중국 칼도 21.5 x 11cm ea. <b>\$12.99</b></p>	<p>KOTO Stainless Steel Steamer Pot (Captured Bottom) 코토 스테인리스 스틸 1단 찜솥 1-Tier 24cm/9.5" <b>\$12.99</b></p>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omissions/mis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8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 휴대폰 빌려달라...군 경계 뚫은 북한 목선 사건의 재구성

## 9일 함경북도서 출항해 12일 NLL 넘어 남하 15일 산책하던 주민이 신고..."北에서 왔다"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은 우리 군경의 해상감시를 피해 3일간 유유자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했으며 1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군에 합류, 위장 조업을 하다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어 남하했다.

남하한 어선은 13일 오전 6시께 울릉도 동방 30NM(노티컬마일(5.5km)) 해상에 도착해 정지했으며, 오후 8시께 기상 악화로 표류했다. 이에 어선은 최단거리 육지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했고 14일 오후 9시께 삼척항 동방 2~3노티컬마일(3.7~5.5km)에서 엔진을 끈 상태에서 정지, 대기했다.

어선은 15일 일출 이후 삼척항으로 출발했으며, 오전 6시22분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 끝부분에 접안됐다. 북한

어선이 12일 오후 9시 NLL을 넘어 15일 오전 6시22분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할 때까지 군과 해경이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이다.

15일 이들을 제일 먼저 발견해 신고한 사람은 오전 6시50분께 산책을 나온 주민이었다. 신고자는 차림새가 특이한 북한 선원 4명을 발견하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때 2명은 방파제에 올라와 1명은 서 있고, 다른 1명은 앉아 있었다. 그중 1명은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4명은 인민복(1명), 얼룩무늬 전투복(1명), 작업복(2명) 차림이었고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2명은 최초부터 귀순의도를 갖고 출발했다고 진술했으며 나머지 2명은 본인 의사로 전날 북한으로 송환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됐다. 관계 당국은 이들이 남쪽으로 넘어온 경우, 북측에서의 신분 등을 계속 확인 중이다.

북한어선은 높이 1.3m, 폭 2.5m, 길이 10m로, 15일 오전 7시35분부터 오전 8시 45분까지 동해 해경 경비정에 의해 동

해상으로 예인됐다. 어선은 현재 동해 1함대에 보관돼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sseol@news1.kr

## 문 대통령, 북 선박 경계 · 보고에 문제없는지 철저히 점검 지시

### 정경두 국방부 장관, 文대통령 · 부처 장관들에 사과

(서울=뉴스1) 최은지, 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시작하기 전 참석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북한 선박과 관련해 문제점들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이용해 삼척항에 정박한 것과 관련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경두 장관이 오전에 북한 선박 관련 대국민 사과 관련 답변문 발표가 있었다"며 "그래서 정 장관은 반부패정책협의회 차담회에 모인 대통령을 비롯한 부처 장관들 모두에게 사과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선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그냥 오는 과정에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또 이쪽으로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이 두 가지 대응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 목선 경계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게 대해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합동조사로 모든 진상을 밝혀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라며 "깊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정 장관에 대해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와 정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

silverpaper@news1.kr

## 국정원, 북한 목선 민간인 2명 귀순 선장, 아내와의 불화로 귀순

###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아

(서울=뉴스1) 김정률, 이균진 기자 = 국가정보원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 중 1명은 가정 불화로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19일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브리핑 받았다.

이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에)귀순한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니까 선장은 부인과 가정불화로 인해 (귀순)을 하게 됐다"며 "전혀 이해 되지 않는 얘기를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귀순을 선택한) 2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2명에 대해서 조사를 안했다"며 "이것은 완전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목선에 4명이 타고 삼척항에 접항하고 상륙 한 것이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당시 북한 선원들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뒤 주민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15일인데 18일에 귀국 의사를 밝힌 2명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 작은 목선에 4명이 타고 조업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오징어를 잡아서 운반선에 보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jrkim@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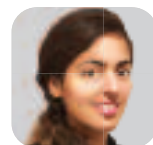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OUR LISTINGS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Fish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몰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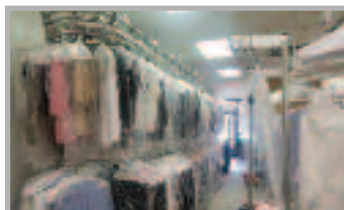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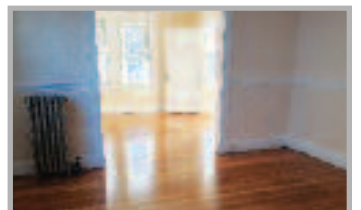
**커피샵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연매상 20만불 이상 확보된 단골 고객, 부담없는 렌트비 1200 sq.ft.  
**Asking \$140,000**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sking \$40,000**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3 Beds & 1 Bath, 새로 레노베이션된 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 인접, 8월15일부터 입주 가능  
**Asking \$240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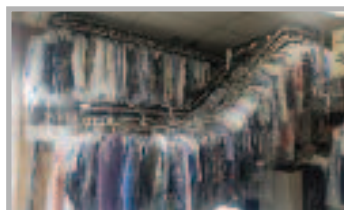
**리테일 가게 매매**  
대형 아시안 슈퍼마켓내에 입점 연중무휴로 바쁜 가게, 안정된 고정 매출 업종 변경 가능  
**Asking 가격 문의 바람**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sking \$50,000**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파격 발탁, 청 "흔들림없는 강직함"

## 文대통령, 문무일 후임으로 지명...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청와대 "국정농단·적폐청산 수사 성공 이끌어"

(서울=뉴스1) 진성훈,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대변인은 지명 배경으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고대변인은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 문무일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로,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서울 출신인 윤 후보자는 총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검 검찰연구관과 대검 중수1·과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권 초인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이끌다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다. 2014년 검찰 인사에서는 대구고검 검사, 2016년 인사에서는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지명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현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가 아래인 탓에 연수원 19~23기 검사장 등 수십명이 줄줄이 용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윤 후보자를 비롯해 봉옥 대검찰청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등 4명을 신임 총장 후보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청와대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임명제청 관련 안건을 의결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결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도 청문결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truth@news1.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 검찰총장 직행 윤석열은 누구? 대학땐 전두환에 사형구형

### 사시9번 낙방 늦깎이...차정부서 좌천·文정부 발탁 前 대통령·대법원장 구속기소..."사람에 충성 안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문재인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는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고검장을 지내지 않은 첫 총장 후보자로 기록되게 됐다. 윤 후보자가 문무일 총장(58·18기)의 후임으로 검찰 수장에 오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다. 윤 후보자는 서울 출신이다. 일각에선 조부와 부친의 고향이 충남 논산이어서 '충청' 인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서울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당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당시 정국 상황을 감안하면 모의재판이라고 해도 당시 실권자에게 사형을 구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윤 후보자는 이 모의재판 후 한동안 강원도로 도피했다고 한다. 윤 후보자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2차 시험에서 9년간 낙방하다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뒤늦게 합격해 검사에 임용됐다. 그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 활동을 거친 후 검찰에 재임용됐다. 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평양으로 옮겨갈 때 이명재(76) 전 검찰총장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는 사석에서 "1년간의 변호사 활동이 이후 검사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라고 말해 왔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대검 중앙수사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팀에 참여할 때 안대희 당시 중수부장(64·7기)이 로펌 근무 이력을 높게 평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재임용된 이후 광주지검과의 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서 근무했고,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론스

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2007년 변양근·신정아 사건, 씨앤(C&)그룹 비자금 수사,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을 주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오른팔'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후원자' 고(故) 강금원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특별수사에 정통한 대표적 '특수통'이자 소신이 뚜렷한 '강골검사'로 꼽힌다. 윤 후보자는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일선 청에서 수사검사로 근무하면서 부정부패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왔다. 합리적 판단과 원칙을 지키는 강직한 성품으로 검찰 내에서 후배들의 신망이 높다. gayunlove@news1.kr

##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공정평가 50%, 부정평가 36%

### '매우 잘했음' 31%... '매우 잘못했음' 2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민 절반은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지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8일 실시하고 19일 발표한 조사 결과 검찰총장 지명에 대한 국민인식은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49.9%로 집계됐다.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35.6%이며 '모름/무응답'은 14.5%로 조사됐다. 긍정평가 중 '매우 잘했음'은 30.8%, '잘한 편'은 19.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중 '매우 잘못했음'은 20.8%, '잘못한 편'은 14.8%다. 계층별로 긍정평가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 50대 이하 전 연령층, 호남과 서울, 경기·인천, 충청권에서 우세했다. 부정평가는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 60대 이상,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에서 높았다. 무당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다. 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긍정 87.4% vs 부정 3.2%)과 정의당 지지층(85.7% vs 8.3%), 진보층(78.2% vs 11.8%)에서 10명 중 8명정



도로 높았다. 중도층(49.8% vs 37.8%), 40대(61.3% vs 28.7%)와 30대(57.0% vs 22.6%), 50대(51.4% vs 41.6%), 20대(42.8% vs 36.0%), 광주·전라(64.1% vs 24.6%)와 경기·인천(55.3% vs 32.4%), 서울(52.8% vs 32.3%), 대전·세종·충청(42.8% vs 21.5%)에서도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부정평가는 자유한국당(긍정 4.8% vs 부정 85.7%)과 바른미래당(22.2% vs 51.7%) 지지층, 보수층(19.3% vs 68.8%), 부산·울산·경남(38.4% vs 51.6%)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60대 이상(긍정 40.2% vs 부정 44.3%)과 대구·경북(43.6% vs 48.4%)에서도 부정평가가 다소 우세한 양상이었다. 무당층(긍정 33.5% vs 부정 34.6%)에서는 긍정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95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5.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soho0902@news1.kr

#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행로써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초음파,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혁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셋트, 주동물 제공합니다.  
\* 심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 중년의 눈성형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피부는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고 피부를 채우고 있던 지방세포들도 노화로 인해 감소하면서 피부는 얇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눈 주변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피부의 두께가 더 얇기 때문에 한번 처지기 시작하면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마 근육을 사용해 눈을 뜨는 횟수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이마 주름이 생성되거나 깊어지는 등 외관적으로 더욱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

특히 중년의 눈수술은 성형수술 중 가장 복잡한 수술이고 추후 노화에 따른 심미적 변화뿐 아니라 기능적 부분까지도 신중히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눈꺼풀 지방과 처진 피부를 제거하고 쌍꺼풀 라인을 새롭게 생성하는 등의 상안검 성형술을 많이 시행하였으나 종종 수술 후 사나위 보이거나 새롭게 생성된 쌍꺼풀 라인으로 인해 어색해 보여 수술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처진 눈꺼풀의 경우 일반 쌍꺼풀 수술과는 달리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눈 처짐만 해결하는 방법으로 눈꺼풀이 처져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 처진 눈꺼풀 때문에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 쌍꺼풀수술로 인해 인상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 눈썹하거상술이 적합한 수술이다.

눈썹하거상술은 눈꺼풀 피부를 건드리지 않은 채 눈썹 밑 경계선 부위를 절개한 후 눈썹의 아랫부분을 통해 늘어진 피부와 필요 없는 지방을 제거, 피부를 봉합하는 방법이다. 눈썹하거상술은 눈썹 라인을 절개하기 때문에 눈썹 반영구 화장이나 기본 눈썹 화장을 한 후에는 미세한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 기존 쌍꺼풀수술에 비해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중년층들도 부담 없이 수술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처진 부위가 시야를 가리게 되면서 눈 꼬리 쪽이 짓무르게 되는 현상까지 개선하는 것이 기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력저하 증상이나 피부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눈꺼풀 처짐 증상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눈썹하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눈과 눈꺼풀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 답답하게 보이는 경우나 눈 처짐뿐 아니라 이마 처짐까지 개선하고 싶거나 쌍꺼풀 수술 없이 눈매를 시원하게 교정하고 싶은 경우라면 미니눈썹하거상술이 적합하다.

노화는 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에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성형외과를 찾으나, 대부분 없던 쌍꺼풀라인이 생겨 성형수술 전후 결과가 확연히 눈에 띄는 처진 윗눈꺼풀만 수술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오해하고 이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눈수술을 윗 눈꺼풀 즉 상안검 성형에 국한해 생

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눈성형은 성형수술 중 가장 복합적인 수술이고 중년의 눈수술은 추후 노화에 따른 심미적 변화뿐 아니라 기능적 부분까지도 신중히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기

에 상안검, 하안검, 눈썹하거상술, 미니눈썹하거상술, 눈밑지방재배치 등 전체적인 눈매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이 들어 아래 눈꺼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눈 밑 지방을 싸고 있는 주머니도 늘어나 눈 밑 지방이 볼록하게 돌출되고, 튀어나온 지방 아래로 눈 밑 고랑이 깊어지기에 이런 경우는 하안검수술과 함께 눈밑지방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피부 탄력이 떨어진 중년 성형일수록 개인별 차이를 철저히 분석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예쁜 눈이 아니라 늘어진 피부, 튀어나온 지방, 미세한 눈 근육까지 개인의 상태에 맞추어 섬세하게 교정해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중년 눈성형은 무작정 유행에 따르거나 예뻐지고 싶다는 욕심에서 출발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전체적 눈매교정

이 진행되어야 한다” 며, “성형수술 중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며 수술 후 효과도 모두 좋을 듯한 눈성형이지만 중년의 경우 특이나 각기 다른 개개인의 눈 상태와 눈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까지 정확히 파악 가능한 임상 경험과 지식은 물론 노하우까지 갖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좋다”

“중년의 눈성형”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스톤코리아(617-949-176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49-1766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은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

**ASKING \$899k - 1199k**



**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

**ASKING \$600,000-\$800,000**

###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 금주의 LISTINGS



**Quincy condominium.**  
644 Sq, 1bed, 1bath. 1985 built, condo fee \$330. 투자용으로도 좋은 위치. North Quincy "T" station, Marina bay 걸어서 다닐 수 있음. 수영장 있음

**ASKING \$27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매매**  
30년 이상된 대형 물안에 위치. 고정 고객과 안정된 매상. 하이드로카본. Full plant.

**ASKING \$19,9500**



**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

**ASKING \$375,000**



**보스톤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

**ASKING \$99,000**



**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Cash \$90,000, owner finance \$ 30,000

**ASKING \$120,000**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애나 정**  
617.780.1675



**오성빈**  
978.505.3736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 SOLD

1. 퀴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 LISTINGS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보스톤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

**ASKING \$170,0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

**ASKING \$200,000**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특별가 이벤트

#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 1 휴람 안 종합검진 (베이직 : 소요시간 30~40분 / 프리미엄 : 1시간 30분)

40대가 되셨나요? 눈도 풍겨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 1) 휴람 베이직 안검진 : **10만원** (10여 가지 검사)
  - 시력상대, 색내장, 녹내장, 망막이질어문 기본질환 유무 확인
  - 기본시력검사(안안, 안경치방, 타자적, 굴절력, 노안) + 세극등현미경, 안압, 안저촬영
- 2) 휴람 프리미엄 안검진 : **25만원** (50여 가지 검사)
  - 기타부터 시신경 병마 구비구적저자한 정밀검진, 2인비다 한면역은 필요없습니다.
  - 휴람 베이직+녹내장+색내장+안구진료증+시신경영역+기타안정밀검사 포함

## 2 노안 잡는 노인성 백내장 수술 (노안 + 백내장 해결)

오래 사용하신 노후된 백내장 수정체 대신 깨끗한 뉴-수정체로 바꿔 시력을 되찾으세요~  
신문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시원하게 쬐겨진 풍경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1) 노안교정 백내장 : **299만원** (양안)
- 2) 다초점 인공수정체 노안 백내장 : **700만원**

##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양안)

휴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나요?  
노안이 왔다 레이저 라식/라섹수술로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곳중엔 프르제프리(노안 해결)

**150만원** (프리미엄 안검사 포함)

## 4 2030 라식/라섹 **130만원** (DNA(10만원 상당), 안종합검진 포함)

※ 수술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안 라식/라섹은 당일 수술가능합니다.  
※ 수술에 제한된 약값은 개인부담이며, 안종합검진 진료후 처방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중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육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다면...**  
20~30대 여러가지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레이저를 이용한 노안교정이 가능합니다.



**안경과 돋보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책과 신문, 핸드폰등을 돋보기를 통해 봐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친구보다 노안이 빨리 온 경우**  
나도 모르게 온 눈의 노화현상을 개선해 드립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실 경우**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 [렌즈삽입수술]을 통하여 백내장을 치료하고 노안도 개선 할 수 있는 수술방법입니다.



허오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a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건금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안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941-9900
전화신청 (Verizon)	617-555-1515
전화공정고 (Verizon)	617-343-4475
택시	800-222-4357
AAA	617-741-5533
FBI	800-392-6100
MBTA	800-572-9300
NSTAR가스	800-592-2000
NSTAR 전기	800-746-4726
RCN케이블TV/전화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회	978-902-8305
NE교역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주세주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494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력연합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대한인정재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보호(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한미)	617-780-7205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몰트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트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치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617-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날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781-642-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어 벨트교회	978-274-235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콘신터 교회	97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만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도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정 브랜드스터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록 루프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일랜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이명원 회계사	508-584-5860
정진수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울스톤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파티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안구정통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86-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혜(K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1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 돌상 대어/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팩트(이재원)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스킨&바디 클리닉	617-2026261
메드스파켄넬리스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8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빙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보스톤건스태드카이로	617-277-0648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비즈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웨스트보로한국식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몬덴	

**성양주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David's Catholic Parish of Boston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성당 야드세일  
 6월 1일 (토) 9시-2시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열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동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19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60 4·19 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

1987 6·10 민주항쟁

1998 IMF 외환위기 극복

2016 촛불 시인 혁명

2018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평양)

2019 3·1운동 100주년

2019 4·1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아스달연대기' 2막 연다... '뒤집어지는 하늘, 일어나는 땅'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tvN '아스달 연대기' 장동건 송중기 김지원 김옥빈 송중기 5인이 격렬한 전장 속 카리스마를 폭발시킨 'Part2 뒤집어지는 하늘, 일어나는 땅' 메인 포스터가 19일 공개됐다.

tvN 주말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극본 김영현, 박상연/ 연출 김원석)는 태고의 땅 아스에서 서로 다른 전설을 써가는 영웅들의 운명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며, 대한민국 최초 태고 판타지라는 색다른 시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는 22일 방송부터 Part1 예언의 아이들에 이어 'Part2 뒤집어지는 하늘, 일어나는 땅'이 방송된다. 지난 Part1 엔딩에서는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있던 은섬(송중기 분)과 쌍둥이인 사야(송중기 분)의 존재, 타곤(장동건 분)이 은섬과 같은 이그트였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겼던 상황. 이로 인해 Part2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더 깊어진 서사, 더 강렬해진 스토리가 펼쳐지면서 안방극장의 몰입감을 높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장동건, 1인 2역 송중

기, 김지원, 김옥빈 등 극을 이끌어갈 5인 캐릭터의 강렬한 면모가 담긴 Part2 메인 포스터가 베일을 벗어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1인 2역으로 활약할 송중기는 같은 하늘,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이그트 쌍둥이 형제 은섬과 사야로 변신해 180도 다른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 타곤이 데려오고, 태알하(김옥빈 분)가 몰래 키워준 아스달의 아이 사야역 송중기는 화려한 흰색 의상과 긴 머리, 고운 피부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있지만, 불안한 눈초리를 드리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반면 외한족을 구하기 위해 아스달로 온 외한의 전사 은섬 역 송중기는 보라색 피를 흘리면서도 어딘가를 날카롭게 응시하는 비장한 모습으로, 쌍둥이 형제의 극과 극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

또 천재적인 전략가이자 권력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새벽족 대칸부대의 수장, 타곤 역 장동건은 포스터 정중앙에서 압도적인 포스로 분위기를 휘어잡고 있다. 전사의 복장을 한 장동건이 세상을 다



삼켜버릴 듯한 강렬한 눈빛을 장착한 채 위엄 있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는 것. 아버지 산웅(김의성 분)을 단칼에 처리하고 스스로를 '아라문 해슬라'라 속인 어두운 욕망, 하지만 은섬에게 이그트라는 정체가 밝혀져 버린 위기 속에서 새롭게 전개될 타곤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외한족 씨족어머니 후계자인 탄야역 김지원은 화관을 했던 Part1과 달리 아스달 사람들과 같은

웃을 입은 채 부릅뜬 눈과 앙다문 입술로 결의에 찬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런가하면 해족 족장 딸이자, 권력을 갈망하는 욕망의 정체가 태알하역 김옥빈은 타곤 뒤에 비스듬히 서서 화려한 복장과 장신구로 한껏 꾸민 채 표정 변화 없이 냉철하면서도 야망에 가득 찬 눈빛을 보여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제작진은 "'아스달 연대기' Part2 메인 포스터는 등장부터 충격과 궁

금증을 안겼던 사야를 포함한 5명 인물 각각의 스토리를 내포하고 있다"라며 "세상을 끝낼 천부인(은섬, 사야, 탄야)과 왕이 되고 싶은 타곤과 태알하의 이야기가 새롭고 심도 있게 펼쳐질 예정이니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새로운 인물, 강렬한 서사, 장엄한 스케일이 돋보일 tvN 주말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Part2는 오는 22일 공개된다.

ichi@news1.kr

6월 23일 - 6월 29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b></p> <p>●운수: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한 번 살펴보세요.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금전: 이래저래 나가야 할 것이 많으니 돈 문제로 잔심경을 쓰게 되겠습니다. ●애정: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편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4, 28일 길일, 23, 26일 주의.</p>	<p><b>소띠   미리 대비를 해두는</b></p> <p>●운수: 자신만 부족하고 자신만 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기만의 처한 상황이 있는 것이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지연되기 쉽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5, 29일 길일, 24, 27일 주의.</p>	<p><b>범띠   밝고 환하게 웃는</b></p> <p>●운수: 어디를 가든지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일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금전: 나가는 것이 많아도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애정: 기대해도 될만한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싱글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위를 잘 살펴보면 운명의 짝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3, 26일 길일, 25, 28일 주의.</p>
<p><b>토끼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b></p> <p>●운수: 말을 전하려면 토끼 하나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세요. 잘못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원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애정: 누구든지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24, 27일 길일, 26, 29일 주의.</p>	<p><b>용띠   냉철하게 살펴보고</b></p> <p>●운수: 귀가 얇아져서 이 치료 저 치료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금전: 현금 흐름을 잘 살펴봐도록 하세요. 자신의 자금 상태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되더라도 누군가 한사람이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양보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5, 28일 길일, 26, 27일 주의.</p>	<p><b>뱀띠   크게 기지개를 펴고</b></p> <p>●운수: 새우잠을 자는 형상처럼 잔뜩 움츠렸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크게 기지개를 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금전: 자신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언젠가 뿌려놓았던 씨앗이 귀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애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6, 29일 길일, 25, 28일 주의.</p>
<p><b>말띠   훌훌 털어버려야</b></p> <p>●운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상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조금만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금전: 돈에 연연하다가 되는 도리어 병이 되니 훌훌 털어버리세요. ●애정: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나 진심으로 한 말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5, 27일 길일, 23, 29일 주의.</p>	<p><b>양띠   감사하는 마음으로</b></p> <p>●운수: 자신이 마음먹고 생각한대로 일이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두루두루 살피고 베푸는 여유도 생깁니다. 자그마한 성의표시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아끼고 아끼던 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서로의 마음이 합쳐질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3, 26일 길일, 24, 27일 주의.</p>	<p><b>원숭이띠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로</b></p> <p>●운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하게 보낼 것입니다. ●금전: 원하던 것을 원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유리한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모처럼 집안에 온기가 됩니다. 함께 웃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4, 28일 길일, 23, 25일 주의.</p>
<p><b>닭띠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b></p> <p>●운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간 거리만큼 돌아 나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손해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만 듣거나 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면 금방 후회하게 되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사야 할 것입니다. ●애정: 걸로는 관찰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니니 표정관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8일 길일, 23, 26일 주의.</p>	<p><b>개띠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b></p> <p>●운수: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생활 속 여러 면에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변화가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금전: 매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얻는 것도 많아지니 여러 가지 부담감에서 벗어납니다. ●애정: 생각지도 않은 즐거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소개를 받는 자리는 마다하지 말고 꼭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3, 26일 길일, 24, 27일 주의.</p>	<p><b>돼지띠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b></p> <p>●운수: 자신이 보고 듣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넓디넓은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전: 아직은 안심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다 된 일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애정: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자녀에게 어떤 영향제보다 더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3, 27일 길일, 25, 28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급구] 부산식당에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T. 978-897-5107

뉴장수 갈비에서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Full Time 또는 Part Time 모두 가능)  
T. 781-272-3787

##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메이над 소재 한인식당 매매합니다.  
렌트비 저렴, 러커라이센스 보유.  
T. 978-897-5107

# '썸바이벌 1+1' 이수근 · 김희철 · 소유 · 피오, 썸매니저

(서울=뉴스1스타)고승아 기자= '썸바이벌 1+1 - 취향대로 산다'(이하 '썸바이벌 1+1') 4MC 군단의 개성 넘치는 포스터가 공개됐다.

오는 26일 처음 방송되는 KBS 리얼 버라이어티 '썸바이벌 1+1'(연출 강승연)은 싱글 청춘 남녀들이 마트에 모여 썸도 타고 장도 본다라는 콘셉트의 신개념 취향 썸바이벌 프로그램. 기존 연예 리얼리티와는 다르게 오로지 취향만으로 짝이 되고 취향이 같아야 살아남는 점의 독특한 구성과 함께 4MC로는 이수근, 김희철, 소유, 피오가 캐스팅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17일 '썸바이벌 1+1' 측은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4MC 군단의 개인포스터 4종을 공개했다. 코믹한 표정이 돋보이는 예능 장인 이수근부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고 있는 '민보예'(민고 보는 예능인) 김희철, 썸

열풍의 주인공 소유, 썸타고 싶은 남자 피오까지 MC 4인의 각양각색 매력이 더해져 눈길을 끈다.

특히 4종의 포스터에는 젊고 발랄함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마트로 여행을 간다는 콘셉트를 보여주는 '캐리어'가 더해져 프로그램 특유의 유쾌함과 설렘을 잘 보여준다. 마트와 여행, 그리고 '썸'이라는 서로 다를 소재가 만나 어떤 신박한 재미를 보여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MC 이수근, 김희철, 소유, 피오는 '썸 매니저'로서 썸타는 싱글 남녀들의 미묘한 러브라인을 자극하며 이들의 커플 매칭을 위하여 고군분투했다는 후문이다. 오직 취향만으로 썸을 타는 국내 최초 신개념 서바이벌 '썸바이벌 1+1'은 오는 26일 오후 11시 10분 처음 방송된다.

seunga@news1.kr.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 레드벨벳, 컴백하자마자 뜨거운 관심.. '짐살라빔' 뜻은?

(서울=뉴스1스타) 이지현 기자= 레드벨벳의 이번 타이틀곡은 '짐살라빔(Zimzal-abim)'. 새로운 타이틀곡이 공개되자마자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짐살라빔'은 유럽에서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마음 깊이 담아둔 꿈을 펼쳐라는 주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짐살라빔'은 시원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중독성 강한 일렉트로 팝 곡이다. 주문을 외우며 꿈을 펼쳐 보자는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다. 레드벨벳은 '짐살라빔'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lll@news1.kr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20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your home!  
Please call us for your major and mid-size  
renovation and new build projects.

otk212@gmail.com 617.620.8242

No handyman jobs, please.

© 2019 OTK DeCon Group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 한인업소록



##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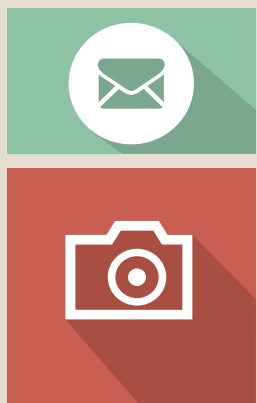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을 원하시면 :  
upsorok@bostonkorea.com으로  
이메일하세요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2019  
**LEE SUNNHEE CONCERT**  
**climax**

Mohegan Sun Arena

07.27.2019 Sat. 8PM

\$250/ \$200/ \$150/ \$120/ \$90

Tickets: (718) 358-1651

info@jhlenterpris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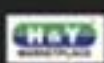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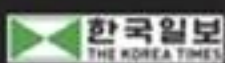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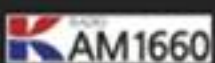
Offline Ticket Sale   
 Flushing NY / Hicksville NY /  
 Ridgefield NJ

Online Ticket Sale   
<http://hotdeal.koreadaily.com>  
 Tel. (213) 784-4628

Shuttle Bus Tel: (888) 508-9793

Presented by JHL Enterprise

 jhlenterprise  jhlenterpriseNY



ASIAN HOTLINE: 877.999.9977 | MOHEGANSUN.COM/888

# 신영의 세상 스케치

700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Mt. Zealand와 들꽃향기...

뉴잉글랜드 지방 매사추세츠주 보스턴과 뉴햄프셔주 인근에 산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날이다. 1시간 남짓 운전으로 가면 바다가 있고 2시간 정도 가면 산을 만난다. 매사추세츠주 동쪽으로 대서양과 접하고 북쪽으로 버몬트주와 뉴햄프셔주, 남쪽으로 로드아일랜드주와 코네티컷주, 서쪽으로 뉴욕주와 접한다. 영국 청교도들이 정착했던 탓에 그들의 정신문화가 깊이 박혀 있으며 매사추세츠주는 유서 깊은 교육의 고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욱더 좋은 것은 자연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우거진 숲과 산과 바다가 많다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 토요일 <보스톤산악회> 정기산행이 있어 다녀왔다. 산악회에서는 나네임을 정해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모임에서 처럼 그는 누구(학연, 자연 지위 등)라는 수식의 필요성을 접고 산(자연)이 좋아 만나고 나누는 그저 자연의 한 사람으로 만나자는 취지에서의 시작이라고 한다. 내 닉은 '하늘'이다. 그리고 이번 정기산행을 주관했던 분의 닉은 '들꽃향기'였다. 들꽃향기님은 산을 오르지 10년이 된 산사람이고, 나는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 만 8년차의 산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10년이 가깝도록 함께 산을 오르내리니 나이와는 상관없이 편안한 친구가 되었다.

10여 년이 다되도록 산을 오르내리다 보니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뉴햄프셔주 화이트 마운틴 지역을 지나칠 때면 산들이 눈을 통해 마음으로 들어온다. 부르지 않아도 익혀진 이름으로 가슴을 파고든다. 그 계절마다에서 만났던 아름다운 추억과, 버거웠던 산행의 힘들 속에서의 추억들이 곰실거리며 가슴을 헤집고 파고드는 것이다. 이렇듯 정해놓고 오른 것은 아니었지만, White Mountains 안에 4000피트 넘는 산이 48개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35개 이상을 올랐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화이트 마운틴 안에 4,000 피트(The state of New Hampshire 4,000 Footer mountains)가 넘는 산이 48개가 있다. Mt. Washington, Adams, Jefferson, Monroe, Madison, Lafayette, Lincoln, South Twin, Carter Dome, Moosilauke, Eisenhower, North Twin, Carrigain, Bond, Middle Carter, West Bond, Garfield, Liberty, South Carter, Wild-

cat, A peak, Hancock, South Kinsman, Field, Osceola, Flume, South Hancock, Pierce, North Kinsman, Willey, Bondcliff, Zealand, North Tripyramid, Cabot, East Osceola, Middle Tripyramid, Cannon, Hale, Jackson, Tom, Wildcat, D Peak, Moriah, Passaconaway, Owl's Head, Galehead, Whiteface, Waumbek, Isolation, Tecumseh.

지난해 가을이었던가. 가을 산을 오르며 들꽃향기님이 말씀을 하신다. '하늘, 우리 4000ft 이상의 48개 산행을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요'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참 기분 좋은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지내다 이번 산행지 Mt. Zealand(4,260ft/11.2 miles)는 <보스톤산악회>에서 10년 만에 두 번째로 오르는 산이라고 했다. 산 높이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거의 7시간이 넘게 걸릴 수 있는 긴 산행지였기에 선뜻 정하지 못했던 산행지였다. 겨울 계절이면 엄두도 못 낼 산행지였지만, 여름 계절이라 가능했던 곳이다. 이렇게 또 하나의 산을 올랐다.

산은 정상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산을 하나둘 오르며 오를수록 깨달아 간다. 산을

오르며 만나는 너무도 광활하고 신비로운 자연에서 크신 창조주를 만나고 너무도 작은 피조물인 나를 만나게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산을 오르면 더욱더 겸손한 마음이 절로 차오르고 삶에서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닌 나의 탓을 깨닫게 되는 까닭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자연의 한 일부부인 이유일 것이다. 계절마다에서 만나는 바람은 내 배꼽 밑의 오랜 신음마저 끌어올려 주어 깊은 호흡을 만나게 한다. 새로운 호흡으로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다.

이번 산행지인 Mt. Zealand를 오르며 4.6마일 지점에서 Zealand Fall(AMC Hut)을 만났다. 이때부터는 험하고 가파른 길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힘겨운 걸음으로 한참을 올라 갈림길 사이 Zeacliff(7.0 miles) 지점에 도착했다. 눈 앞에 펼쳐진 진분홍 들꽃(철쭉과)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우리는 또다시 기쁜 숨을 몰아쉬며 Mt. Zealand 정상에 도착했다. 간단히 점심을 먹고 빠른 걸음으로 산에서 내려오니 7시간 만의 산행이었다.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된 Mt. Zealand와 들꽃향기 그리고 들꽃향기님!! ^ ^



## 한담객설閑談客說: 소문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법무부장관 강금실이 전 민정수석 문재인과 서울 시내 한 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 '중년 남녀가 호텔에서 단둘이 한 시간씩이나 만났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불륜남녀' 인지 '불순한 관계' 인지 해명해야 한다.' 고 논평했다. (같은 책, p32) 소문이 무서운건지, 옮기는 게 무서운건지. 무섭긴 무섭다. 오히려 황당하다 해야겠는데, 너무 나갔다. 유쾌하지 않다.

Norman Rockwell 작품이 떠올랐다. 제목도 그럴듯 하다. 'The Gossips'. 그림에선 몇다리를 건넌던가 세어봤다. 열서너번 입소문을 거쳐 출발점으로 되돌아 왔다. 요샌 입소문대신 인터넷이다.

세상소문은 무섭다 했다. 귀를 씻는다고도 했다. 정성수 시인이다. 소문이 이발소에서 퍼진건 아닐것이다.

... 지구 밖으로 흘러내리는 개울물 퍼내어 어두워지는 눈을 씻을 것인가 세상 소문에 때문에 깃바퀴를

두어 번 행귀넬 것인가 상처뿐인 손을 씻을 것인가 ... (정성수, 2월의 시 중에서)

몇주전 한국신문에서 읽었다. 아니, 굵은 활자체가 보이기에 무슨 일인가 했다. 지체높은 양반들 회식자리 였는데, 기사도 동석했다는 거다. 신문에 난 기사일테니 밥만 같이 먹은 건 아닐터. 밥값은 각자 냈던가? 신문은 오지랖도 넓고 빠르다.

당사자들이야 곤욕스러울 게다. 발없는 말 천리를 간다 했다. 말이 눈깜짝 할 사이에 미국까지 왔다. 소문은 아닐지 언정, 기분좋은 뉴스는 아니다. 남의 말을 하는건 재미가 쏠쏠할 수도 있겠다. 뒷맛은 쓰다.

세상에 좋은 소문만 퍼졌으면 한다. 그러리 없지만 말이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태 9:26)

오늘은 남의 글과 남의 말과, 남의 그림과, 남의 시로 채운다. 내 말은 거의 없고 인용이 전부인데다. 옮겨온 소문일 수도 있겠다. 첫번째 인용이다. 강준만교수 책에서 나온다. '이여 정희진은 "이병주의 '지리산'이라는 소설에서, '서른 이전에 혁명가 아닌 사람었고, 서른 넘어 혁명가인 사람도 없다.'

라는 말이 나온다.' (강준만, 인간사색, p155). 작가 이병주가 말한 걸 정희진이 인용했고, 그 글을 강준만이 책에서 언급했다. 이걸 다시 내가 따왔다. 서너다리 건너서 보스톤까지 온거다. 같은 책에서 나온다. 다시 그대로 옮긴다.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은 2004년 3월 22일

보스톤 **코리아**  
www.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이메일 주소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온라인 신문을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스톤코리아  
기사를 확인하세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32)

# 변하지 않는 주식투자 기본

미국에 이민 와서 아이들 키우며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면 세월이 훌쩍 지나간다. 머릿도 희끗희끗해지고 몸과 마음도 옛날 같지 않다. 노후대책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지만 주식시장이 두렵다. 이럴 때 '평생 보장연금' 이라고 설명하며 이것저것을 보장(Guarantee)한다고 하면 숨어있는 내용과 수수료 그리고 매년 부과되는 경비를 알지 못한 채 보험상품인 어뉴이티에 투자한다.

제대로 된 투자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재정칼럼' 을 연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확실히 부자되기' 라는 책을 출간했다. 책 내용에 있는 변하지 않는 주식투자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 \* 5년 이내에 필요한 돈은 주식시장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 \*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 그만큼 투자 위험성 역시 높다.
- \*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 \* 주식투자 위험을 적게 하려면 채권투자

와 현금보유는 필수이다.

- \* 투자의 위험은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분명한 사실은 투자하면 위험성은 항상 동반한다.
- \*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사람도 투자선택이 항상 맞을 수 없다.
- \* 어떤 투자 방법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 \* 투자자 누구나 한때 우연히 좋은 투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 우연(Luck)은 반복하지 않는다.
- \*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모른다" 라는 대답이 정답이다.
- \* 투자자가 똑똑한 것과 주식투자 결과는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 명품 등으로 돈 잘 쓰는 친구를 보면 장기 투자로 제대로 하는 투자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 \*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없다.
- \*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시장 수익률과 거의 비슷하다.

- \*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는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적을 확률이 매우 높다.
- \*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팔고 나오면 투자 손실로 바로 이어진다.
- \* 데이 트레이딩(Day Trading)은 매우 어렵다. 시간문제일 뿐 결국에는 투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주식 대박은 흔하지 않다.
- \* 주식시장 폭락하기 전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상승하기 전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 과거 주식시장 통계를 연구해서 미래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그저 허망한 꿈이다.
- \* 복리효과는 매우 놀랍다. 그러나 복리의 단점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 \* 투자 결정할 때 마음(Emotion)을 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 개별회사투자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다.
- \* 제대로 하는 투자는 잔디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루(Boring)해야 한다.
- \* 우리는 모두 워런 버핏이 결코 아니다.

- \* 주식시장은 투자자의 마음을 절대 헤아리지 않는다.
- \* 보험은 투자가 아니다.
- \*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가 있으면 폭락할 때도 있다.
- \* 미래 예측은 어렵다. 주식 시장 예측은 더욱더 어렵다.

지난 10년 동안 \$100,000 투자가 \$406,327로 증가했다. 투자 돈이 네(4) 배로 불어난 것이다. 이것은 투자를 잘해서 혹은 투자종목이나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서 돈이 불어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S&P 500지수 종목에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수익이며 수익률이 300% 이상(The record bull market is 10 years old, Paul Davidson, USA Today, March 8, 2019)이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자자 대부분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과거 주식시장 이해, 감정조절(Discipline), 그리고 장기투자자와 투자에 대한 겸허한 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80 화랑세기(花郎世紀), 11세 풍월주(風月主) 하종(夏宗)(21)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11세 풍월주 하종을 읽다가 보면 두어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먼저 황중(荒中, 황중은 신라말로 거칠부居柒夫였다. 물론 한자로 표기하였다. 같은 사람의 다른 표기임은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화랑세기(필사본) 전편에 황중이라는 순수 한문 이름으로 등장하던 인물이 11세 풍월주 하종조에는 거칠부라는 순수 신라식 이름으로 딱 한군데 등장한다. 이것은 아마도 김대문이 아버지 오기공의 원고를 순한문으로 고쳐 쓰다가 빠뜨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혹은 필사자 박창화가 황중으로 쓰여진 원본을 거칠부로 필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왜 한 군데만 '거칠부' 로 등장할까?

김대문이 화랑세기를 완성하고 나서 쓴 후기에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찍이 향음(香音)으로 화랑세보(花郎世譜)를 저술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불초(佛草)가 공무의 여가에 낭정(郎政)의 큰일(大業)을 모으고, 파맥(破麥)의 정사(正邪)를 밝혀 아버지의 계고(稽古)의 뜻을 이었다. 혹 선사에 하나라도 보람이 있을까?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김대문의 아버지 김오기는

순수 신라말로 '화랑세보' 를 저술했었다. 그런데 완성을 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김대문이 다시 한문으로 옮겨서 '화랑세기' 라 제명하고 완성하였다.

그러다보니 김대문이 가필한 흔적도 보인다. 하종전에 나오는 다음 대목에서 볼 수 있다. <보리공이 (하종공을 이어) 풍월주 자리에 올랐다. 보리공은 곧내 증조부이다. (증조부는) 일찍이 내 아버지께 하종공을 칭찬하며 이르시기를 "지금 세상에 이런 효자 충신은 없다" 고 하셨다.>

그런데 위의 대목은 애초에 김대문의 아버지 오기공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을 것이다.

<보리공이 풍월주의 자리에 올랐다. 보리공은 곧내 조부이다. 일찍이 나에게 하종공을 칭찬하며 이르시기를 "지금 세상에 이런 효자 충신은 없다" 고 하셨다.>

보리공이 풍월주에 취임한 연도는 591년이다. 그가 태어난 해는 573년(계사년)인데 사망한 연도의 기록은 없다. 그런데 그가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은 예원이라 하고 딸은 보통이라 했으니 곧 우리 문무후후의 어머니다" 라는 기록이 보리공전에 나온다. 예원은 607년에 태어나서 673년에 사망하였다. 그러니 보리가 34세에 예원이 태어났다. 그리고 예원의 아들 오기는 633년에 태어나서 681년까지는 생존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김대문의 생몰기록은 없다. 그래서 약 660년경에 태어났다고 가정한다면 그의 증조부 보리는 이미 구순을 바라보기에 김대문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화랑세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각 풍월주의 재임기간은 늘어나는데 반해 기록된 분량은 적어진다. 특히 25세 풍월주 춘장공부터 화랑이 '국선(國仙)' 으로 바뀌기 전의 마지막 풍월주인 32세 신공까지의 내용은 비교적 소량이며, 29세 풍월주 원선공, 30세 풍월주 천관공, 31세 풍월주 흥언공의 기록은 지극히 미미하다(김대문의 아버지 오기공은 28세 풍월주를 역임했다). 당시까지, 즉 신공이 마지막 풍월주를 마칠 때까지 오기공은 살아있었다. 681년, 신문왕 즉위년에 시위삼도의 대감들이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도둑(賊)들이 많았기에 오기공은 순지, 개원, 당원, 원수, 용원공 등의 화랑들을 데리고 대감들을 파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김흠돌은 흥원, 진공 등과 함께 모반을 꾀하다가 처형되었다(김흠돌은 김유신의 조카이면서 사위이고, 신문왕의 장인이었다. 흠돌은 27세 풍월주, 진공은 26세 풍월주였다. 그외에도 많은 화랑의 풍월주와 낭도들이 '김흠돌의 난' 에 가담하였다).

24세 풍월주 천광공까지는 오기공이 집필했고, 그이후는 김대문이 가필했을 가능성도 추측

해본다. 아니면 필사자 박창화가 어떠한 연유로 완전하게 필사를 하지 못했을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흠돌의 난' 주동자 삼간(三奸)인 흠돌, 흥원, 진공이 화랑의 수장인 풍월주였거나 많은 낭도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가담자들이 흠돌과 인척관계로 얽혀있었다. 30세 풍월주 천관은 김흠돌의 사위, 31세 풍월주 흥원은 김흠돌의 아들이고, 32세 신공은 흠돌의 조카였다. 그러니 흠돌의 난을 진압하는데 크게 공헌한 오기공이 간신적자들의 '행적' 을 기록할 가치와 의미를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어쨌든 후반부 7,8명 풍월주들의 기록이 부실한데,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사건, 그리고 풍월주들의 면면과 그들의 행적을 인지하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김흠돌의 난이 평정된 후 자의태후(제30대 문무왕의 왕비, 여동생 운명(雲明)이 김대문의 어머니이다)는 화랑의 수장인 풍월주 제도를 폐지하고 국선으로 바꾸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h.go.kr)



8만여편의 한국방송 및 최신영화  
내 안자로 골라보는 합법 IPTV

tv... Since 2008  
2018년부터 안정적인 합법권리료로 서비스할  
다들 물어봐도 지금하고 같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유익이기에 우리 가족도



티보플레이 **TBO** 1년에 단 한번

# 1+1 효도이벤트

우리집에 티보플레이 설치하면 부모님댁에는 무료!  
사랑하는 부모님께 티보플레이로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우리집에 설치  
첫번째 티보플레이 ~~\$34.99~~ \$29.99

부모님댁 설치  
두번째 티보플레이 ~~\$34.99~~ **FREE**

2번째 기기는 기기값만 \$55 (이용료 1년 면제) 1년 이후 \$9.99

**1년간 \$1 유료 영화도 모두 무료**

5월1일 ~ 6월 30일 (단 두달간)

## 우리집에 티보플레이 설치하면 부모님댁에는 무료! 티보플레이 1+1 효도이벤트



### 더 작아지고 강력해진 NEW 티보플레이

- ♥ 북미주 전역을 커버하는 판매/AS 딜러 네트워크
- 🕒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시간에 보는 서비스
- 📺 마음 놓고 보는 합법 방송
- 🖱️ 리모콘 하나로 컴퓨터 없이도 쉬운 시청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채널  
티보에 모두 다 있다

TV켜고 리모콘누르면 끝!

컴퓨터 조작이 서투르신 부모님  
이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가요 바둑 인기유튜브  
강의 종교/절교 드라마  
미주로컬라디오 다큐멘터리  
시사 예능 스포츠 뉴스



#### 티보플레이 지역별 가입안내

- 서부** 시애틀 (KTR 253-835-1004) 북가주 (Sky Comm) 408-257-2525 샌디에고 (Ace Tech) 619-316-4182 LA 교차로 (Kyochan) 213-383-1236
- 중부** 시카고 (교차로) 847-391-4112 필라델피아 (News Korea) 872-247-9111 샌안토니오 (코리안 마켓) 210-445-1535 덴버 (아리랑 마켓) 303-756-1743
- 동부** 애틀랜타 (SND Tech LLC) 678-584-6514 오하이오 (주강필라) 267-230-7773 버지니아 (NAV Computer) 709-942-6822  
보스톤 (The Boston Korea) 617-949-1766 NY 교차로 (Kyochan) 917-685-9665 New York, New Jersey 917-488-1072
- 캐나다** 토론토 (경향미디어) 905-832-3333 밴쿠버 (교차로) 604-420-1068

상담 및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49-1766**

LA 가입/문의 **213-999-7090**

본사주소 3435 Wilshire Blvd. #2915, LA, CA 90010

# 이름을 남긴 사람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재미있게도 영어만큼 이 속담이 잘 들어맞는 언어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말은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전화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래 전에 그런 시도가 있기는 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전 국민적 미움을 받던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ooo스럽다', 또는 'ooo하다'란 말이 잠시 유행하기도 했지만 사전에 오르지 못했다.

영어는 다르다. 고유명사를 사용한 단어가 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전에 다룬 적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hamburger도 Hamburg라는 도시 이름에서 생겨난 것이다. Sandwich는 제4대 샌드위치 공작인 존 몬태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카드 게임을 하는 동안 그는 하인에게 두 개의 빵조각 사이에 고기를 넣어서 가져오도록 명했고 다른 사람들도 샌드위치 경과 같은 식으로 달라고 했다. 그가 이런 식의 빵을 즐긴 이유는 먹는 시간을 아껴 게임을 할 수 있었고 포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게임을 중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임에 미치면 이런 식으로 사전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

보이콧, 즉 거부하다란 단어 boycott은 부재지주 대신 농민들을 감독하던 Charles Boycott 감독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흥작이 심했던 어느 해 지주가 평년 소작료에서 10퍼센트를 삭감하도록 했지만 농민들은 25퍼센트의 삭감을 요구했다. 지주가 이를 거부했고

저항하는 일부 농민들을 보이콧 감독이 해고하려고 하자 전체 농민들이 소작료 지불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거부행위를 이르는 이름으로 영동하게 boycott이란 이름이 쓰이게 되었다.

불법적으로 사람을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lynch라 하는데, 이 단어는 미국 독립혁명 시기에 만들어졌다. 1780년대에 버지니아에 살았던 Charles Lynch와 William Lynch는 재판 없이 구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는데 이것이 Lynch Law이다. 여기서 lynch란 단어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구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니 그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낸 사람의 이름이 반대로 사용된 셈이다.

선거철이 돌아올 때마다 태평양 양쪽의 나라들에서 자주 듣는 단어가 gerrymandering이다. 이 단어는 19세기 초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였던 Elbridge Gerry와 salamander(도마뱀)을 합성한 것이다. 그가 자신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이리저리 붙이고 잘라서 만든 결과 선거구 지도의 모습이 마치 도마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게리맨더링을 했는지 인했는지 하면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robot이란 단어는 체코 작가인 카렐 차페크가 자신의 극작품 (RUR)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카렐 자신은 동생

인 조셉 차페크가 이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는 약자로 된 제목 아래에 부제로 (Rossum's Universal Robots)을 붙였다. 제목에 이미 robot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슬라브어권에서 robot이란 단어 자체는 이미 그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가령 robot란 단어는 장원에 소속된 농노들처럼 '강요된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영어단어에 이름을 남긴 고유명사

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의 섬 레스보스를 빼 놓을 수 없다. 기원전 6세기 경 여류 시인 사포가 살았던 것으로도 유명한 Lesbos 섬은 사포가 그곳에 사는 여인들의 아름다움과 여성 사이의 사랑에 대해 노래한 것으로 인해 사포가 여성 제지들과 동성애를 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여성들 사이의 동성애를 가리키는 lesbian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Simeon Solomon, 1884, (Sappho and Erinna in a Garden at Mytilene)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세무법인  
**세무**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 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익명 독자기고

# US 오픈, 게리 우드랜드 케프가 3년 연속 우승 저지

35세의 골퍼 게리 우드랜드가 캘리포니아 페블비치 골프 코스에서 열린 유에스 오픈에서 13언더파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마지막 라운드인 일요일 경기에서 선두로 나서 한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승리로 마무리했다.

유에스 오픈 (US Open) 골프 대회는 PGA, 매스터즈 브리티시 오픈과 함께 4대 메이저 대회 중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 4인치 (10 cm) 높이 이상의 촘촘한 러프가 유에스 오픈의 표준이라서 페어웨이에서 벗어나면 큰 곤경을 겪기에 가장 어려운 경기 중의 하나로 꼽힌다.

1881년에 시작, 올해 119돌을 맞은 US Open에서는 부록스 케프카 (Brooks Koepka)가 3년 연속 우승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대회에서 3타차로 2위를 차지한 케프카 (Brooks Koepka)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US 오픈을 차지했었다.

유에스 오픈에서 4회 우승 기록은 윌리 앤더슨 (스코트랜드), 바비 존스, 벤 호건과 잭 니클라우스 4명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윌리 앤더슨만 190년에 연속 3년 우승(그의 네번 우승) 기록을 세웠다. 올 해에도 114년동안 깨지지 않던 3년 연속 우승 기록은 그대로 유지됐다.

US 오픈이 힘든 것은 우승자가 언더파를 기록 못한 것이 53번이나 되는 것만봐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만 봐도 약 19년 중 7번이 이븐이나 오버파로 우승했다. 그런 점에서 2000년 타이거 우즈가 -12를 기록하면서 최다점 차인 15점 차로 우승한 것이 특기할 만하며 그만큼의 점수 차는 3년 연속 우승과 같이 앞으로 오래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유에스 오픈이 열린 페블비치 골프장은 여섯번째 유에스 오픈을 치렀는데, 해변을 끼고 도는 골프장에 바다 바람에 의해 경기가 큰 영향을 받아서 매우 예상하기 힘든 코스로



게리 우드랜드(35)가 16일 119회 유에스오픈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홀은 200야드 가까운 긴 17번 파3 홀이다. 역시 물을 바라보며 치는데 그린 중간이 훑쪽하고 제일 좁은 그린이며 9번 아이언에서 3우드를 잡을 정도로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1972년에 잭 니클라우스가 1번 아이언으로 깃발을 치면서 우승하고 10년 후에 톰 왓슨이 칩샷으로 버디하면서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다. 2000년에 타이거 우즈가 일부

러 그린 앞 벙커로 공을 보낼 만큼 그린에 올리기 힘든 홀이다. 좋은 성적으로 경기를 마쳐 가다가도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홀이며 긴 파5 홀을 제치고 파3 홀로 제일 힘든 홀로 꼽힌다.

올해 US 오픈에서는 한국의 안병헌 선수만이 동16위에 오르는 등 한국선수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민소식 Update

### 영주권/시민권 인터뷰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관련 신청서의 심사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일부 신청서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단 여론에도 꿈쩍않던 이민국도 최근에는 이를 인지했는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인터뷰를 상대적으로 케이스가 적은 지역 이민국으로 보내 지연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톤이 관할권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로렌스 지역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인터뷰가 정해진 분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문채취는 계속해서 관할권의 이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Infopass Updates

이민관련 신청서에 대해 직접 지역 이민국에 방문해서 문의/조회하는 제도인 Infopass에 최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의 약속을 잡던 이전의 방식이 없어지고 (아직 가

능한 지역이 조금은 있습니다) 전화로만 약속을 만들 수 있습니다. InfoMod (Information Services Modernization Services) 라는 제도인데요, Modernization 이란 단어는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Infopass 약속을 잡으려면 먼저 이민국에 전화를 합니다. 몇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남기면 이민국에서 48-72시간 안에 다시 전화를 해서 지역 이민국에 약속을 잡아줍니다.

물론, 이전의 온라인으로 약속을 잡을 때보다 불필요한 약속들이 걸려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많은 불편한 점이 있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예전에 가 구같은 것들 배달 시킬 때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도착한다는 황당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새제도가 꼭 이렇습니다. 이틀이상을 이민국 전화만 기다릴 수도 없고 혹시 전화를 못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전화가 왔다는 불평도 있고요, 분명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직접가지고 있는 많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영어라 불편한 경우가 있어 이

런경우도 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최근 많은 complaint 들이 접수되고 있다니 빠른 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 H-1B Update

지난 6월10일부터 쿼타가 적용되는 일반 H-1B에 대한 급행신청이 재개됐습니다. 단, 예산문제로 급행신청이 접수됐다는 접수증은 빠른우편이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배달된다고 하니 급행신청 후 온라인으로 접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료를 \$1,410이나 내는대도 말입니다.

### 가짜 출두 통지서

최근 이민법원에 출두하라는 가짜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민법원의 전화시스템 (1-800-898-7180) 에서 본인의 출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과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버튼 몇번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니 굳이 돈써가며 변호사의 도움 받지 않으셔도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 한인업소록



##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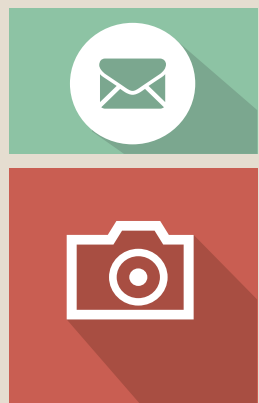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을 원하시면 :  
[upsorok@bostonkorea.com](mailto:upsorok@bostonkorea.com)으로  
이메일하세요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톤 남쪽 런드로멧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1M, 매매가격 \$800k  
플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보스톤 북쪽: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는 세탁 기계, 안전한 매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킥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보스톤 남쪽, 보스톤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플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사쓰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프래밍햄 지역: 런드로멧,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TBO TV  
8만여편의 한국방송 및 최신영화  
내담자를 편리하게 합법 IPTV

8TV Since 2008  
2008년부터 경쟁적인 방송사업자로서  
이민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시리지는 유사서비스에 비해



티보플레이 TBO 1년에 단 한번

## 1+1 효도이벤트

우리집에 티보플레이 설치하면 부모님댁에는 무료!  
사랑하는 부모님께 티보플레이로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우리집에 설치  
첫번째 티보플레이 ~~\$34.99~~ \$29.99

부모님댁 설치  
두번째 티보플레이 ~~\$34.99~~ FREE

2번째 기기는 기기값만 \$55 (이용료 1년 면제) 1년 이후 \$99

1년간 \$1유료영화도 모두 무료

5월1일 ~ 6월 30일 (단 두달간)

우리집에 티보플레이 설치하면 부모님댁에는 무료!

# 티보플레이 1+1 효도이벤트